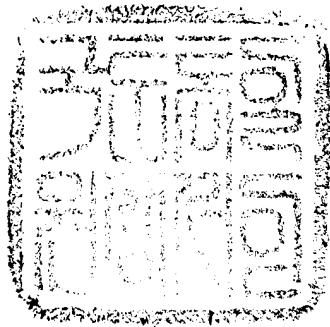


3172  
340.7

국통교 86-12-109

# 南北對話·交流時代に 對備한 統一教育의 새로운 方向定立 研究

1986. 12.



) 통일교육  
통일안보교육  
이세은연구교육  
통일교육이타.

國 土 統 一 院



目 次

---

---

南北韓 對立 이데올로기教育의 回顧와 展望 ..... 1

(서울大 教授 朴 容 憲)

統一教育理念定立과 教育方向 ..... 39

(成均館大 教授 梁 興 模)



南北韓 對立 이데올로기教育의  
回顧와 展望

서울大 教授

朴 容 憲



# 目 次

I. 머 리 말 .....	5
II. 回顧: 變遷過程의 比較 概觀 .....	7
III. 教育環境의 變化 展望 .....	17
IV. 問題의 診斷과 改善의 課題 .....	21
V. 改善의 方向 設定 .....	27
가. 方向設定 .....	27
1. 名稱의 改定 .....	27
2. 國家理念과 體制의 優越性 確信 教育의 最優先 .....	28
3. 思想的 多元化和 混亂 克服을 위한 理念·思想教育의 強化 .....	29
4. 現實認識 能力과 社會問題의 民主的 解決能力의 涵養 教育 強調 .....	32
5. 「理論批判」과 「實際批判」教育의 比重 調整 .....	32
6. 上位 理念과 教育目標間의 一貫性 確立 .....	33
나. 目標 設定 例示 .....	33





## I. 머 리 말

日帝에 의한 國權喪失의 悲運을 마지한 이래 국내외로 흐터져 계속된 끈질긴 獨立運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日帝로부터의 해방과 국권을 찾는 光復은 의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祖國의 分斷과 民族의 분열을 가져오게한 원인이 된 것이다.

外勢에 의한 불가피한 祖國分斷은 南北韓으로 하여금 각기 다른 理念과 體制를 수립하게 하였고 세계에 그 類例가 없는 고도의 문화적, 역사적, 인종적, 언어적 동질성을 유지·발전시켜온 한 민족간에서 對立·對決하는 상극적인 관계로 변질시켜 놓게하였다. 더우기 북한 공산집단이 자행한 民族相殘의 비극적인 6.25 동란 이후 서로간의 對立·對決의 양상은 더욱 굳어지고 치열하게 되었으며 민족 동질성은 점차 약화되거나 잃어가는 비운을 맞게되었다.

이러한 민족적 비운을 타개하고자 끈질기게 계속된 우리 政府의 統一努力에 의하여 1972년에 분단이후 처음으로 南北對話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나 이것도 잠시일뿐 다시 서로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로 되돌아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그 후에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기반 내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계속 제의해 온 對話再開의 노력으로 북한은 소극적이면서도 부분적으로 對話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실제로 1985年度에 부분적이나마 몇차례 對話와 交流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희비가 엇갈리는 마음으로 다소 들뜨게 되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종전까지 실시해 온 우리의 反共教育내지 統一教育에 대해서 회의를 갖거나 반

대하는 의견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는 統一教育努力의 過去를 反省하고, 앞으로의 教育적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方向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의 하나이며 어떻게 보면 더욱 시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이 시도해 온 서로간의 對立이데올로기 教育 내지 政治理念 教育의 양상을 간략히 比較・概觀하면서 앞으로의 變化推移를 教育環境의 變化추이 중심으로 展望해 보고 현재 진행중인 우리의 政治理念 教育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그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課題들 을 분석・검토하고 앞으로 시도되어야 할 統一教育의 定立과 體系化 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Ⅱ. 回顧：變遷過程의 比較 概觀

南北韓이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면서 각기 시도한 정치이념교육의 양상을 初期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으로나마 概觀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각기 상이한 現在的 特徵을 그 뿌리에서 부터 파악하고 그 변화추이의 양상을 전망해 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그 변천과정을 5期로 나누어 극히 간략하게 그 특징적인 양상만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初期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南北韓이 시도한 政治·理念교육의 변천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괄해서 볼 수 있게하기 위하여 그 특징적인 변천요인을 表化해서 <別表>에 제시해 두었다. 그 특징적 요인이란 <別表>에 記號로 제시한 바와 같이 時期別로 제시·강조한 教育目標(※)와 重點教育(O), 그리고 統一政策(△)등이다.

第Ⅰ期의 경우는 南北韓이 理念과 體制를 달리한 政府를 수립한 이후부터 6.25 動亂時期까지에 실시한 教育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南韓은 舊韓末부터 일기 시작한 民族主義思想과 이를 바탕으로 日帝時에 계속된 獨立運動精神, 그리고 上海臨時政府가 제시한 三均主義理念등을 계승한 民族·民主·平和·福祉主義理念을 담은 憲法을 제정하여 建國政府를 출범시키고 傳統理念인 「弘益人間」을 教育이념으로 삼아 民主的 民族教育을 그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같은 理念과 目標들이 教育內容에 具體化되지 못하고 國史·國語 社會科등을 통한 傳統文化와 反日思想등을 주축으로 하는 民族主義教育과 개

<別表>

南北韓 政治理念教育의 變遷過程 比較 概觀

區 分	南 韓	北 韓
I 期 ( '45 ~ '50 )	※ 民主的 民族教育 ○ 公式的 反共教育 없음 △ 北韓만의 선거, 北進統一	※ 마르크스·레닌주의 導入模倣 ○ 당간부양성: 마르크스·레닌主義 學習 △ 南半部解放, 무력남침준비총동원
II 期 ( '50 ~ '60 )	※ 民主市民教育 ○ 反共·道德教育 強化 △ UN 감시하의 남북총선	※ “階級教養” 確立 ○ 階級鬭爭教育 強化 “主體” 시도 △ 非暴力共產化統一, 聯合政府수립
III 期 ( '60 ~ '70 )	※ 民主 → 民族主義教育 轉換 ○ 反共·民族主體性·國力培養 강화 △ 先建設 後統一: 國力 → 平和統一 土着人口比例 自由총선	※ “革命傳統教養” 確立 ○ 主體型 革命傳統강화, “3大革命” 추진 △ 反帝·反파쇼 民主化 南韓赤化革命鬭爭강화 聯邦制
IV 期 ( '70 ~ '79 )	※ 民族主義 教育·民族中興 ○ 統一教育·國民倫理教育 강화 △ 段階的 平和統一·3原則·對話·交流시도	※ 唯一思想體系 確立 ○ 金日成 神格化教育 강화: 主體革命實踐 △ 大民族會議→全民族會議: 高麗聯邦制
V 期 ( '80 ~ 現 )	※ 理念教育·國民精神教育 강화 ○ 이데올로기批判教育·國民精神教育 △ 民族和合 民主統一, 對話·交流 확대	※ 權力世襲化 確立 ○ 金父子偶像化·後繼者 構築教育 강화 △ 高麗民主聯邦制, 民族民主戰線

\* 記號: ※ 教育目標  
 ○ 重點教育  
 △ 統一政策

인의 인격도야와 개성신장, 自由와 平等등 民主主義教育의 내용들을 혼합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이는 정도의 것에 불과했으며 더우기 이 시기에는 反共教育內容들을 정규의 교과서에서는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北韓에서는 민족주의적, 애국적 구호를 이따금씩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反日·反美感情을 고취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 思想과 蘇聯 共產黨史의 소개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같은 思想教育은 黨幹部의 養成教育에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가형성사상의 총동원”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사상교육에 주력하면서 당간부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武力南侵準備를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第Ⅱ期는 6.25 동란후부터 60年初까지로서 50年代 중반까지는 南北韓 공히 전후 복구사업에 주력하여 教育을 정비할 겨를이 없었다. 전후 복구사업을 진행시키면서 南韓에서는 反共教育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나 道德教育과 병행하여 차츰 民主市民教育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教育은 民主市民教育을 주축으로 하는 反共·道德教育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北韓에서는 전쟁의 와중에도 마을마다의 당 핵심분자의 양성과 결속, 영웅적 투쟁정신의 고취등 선전·선동에 힘쓰는바 있으나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주력하면서 각종 제도의 社會主義的 改革을 단행하고 초기에 시도한 마르크스·레닌主義 思想과 蘇聯 共產黨史와 中國革命史의 學習을 계속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階級意識과 階級鬭爭意識을 고취하는 이른바 “階級教養”의 教育 內容체제를 確立하고 이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이어 1950年代 末頃에는 “主體”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종전까지 강조한 마르크스·레닌主義原則을 그들의 現實的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분으로 삼아 남로당계 인사와 연안파, 소련파 등 노동당내 각종의 종파세력을 숙청하고 김일성 個人의 權力을 강화해 나가게 되었다.

第Ⅲ期는 60年代初로부터 그 末期까지로서 南韓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5.16革命이 일어나 第3共和國를 마지하게 되었으며 종전까지 시도한 西歐式 民主市民教育을 지양하고 反共教育, 民族主體性教育, 經濟成長을 통한 近代化教育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先建設 後統一”이라고 統一政策을 제시하고 경제건설을 우선하고 國力培養에 주력하였다. 北韓은 中·蘇간의 관계 악화로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등거리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김일성 1人獨裁體制를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對內外的 政策에 맞추어 이미 제시한 “主體思想”과 抗日계릴라전의 革命傳統을 확대 과장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確立한 것이 이른바 “革命傳統教養”이며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과 “主體思想”을 짜집기한 것으로 다음에 제시할 김일성 唯一思想의 기초를 이루게 되며 이것으로 종전까지 강화해온 傳統文化 抹殺政策을 다소 완화케 된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 들 것은 5.16革命이후 세워진 第3共和國初期부터 南韓에 일게된 學生運動을 선동하기 위하여 “反帝, 反파쇼 民主化.”의 구호를 내세워 南韓內의 赤化革命力量을 강화하려한 것과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

고 있는 對南革命戰術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第Ⅳ期는 70年代初로부터 그 末期까지로서 南韓에서는 民族主體性 教育을 일층 더 강화하고 前期에 제정 공포한 “國民教育憲章”(1968)의 理念과 目標에 따른 國民교육을 구체화하고 일반화하게 되며 72년에 시작된 일시적 南北對話와 交流에 따라 종전의 反共教育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統一教育體系를 확립·추진하게 된다. 北韓에서는 前期에 구축한 김일성 1人獨裁體制와 또한 前期에 확립한 “革命傳統教養”을 더욱 굳히고 확대하기 위하여 김일성의 革命思想을 唯一思想으로 하는 이른바 金日成主義를 확립하여 김일성 個人崇拜와 個人偶像化 내지 神格化를 위한 教育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렇게 하여 김일성 사상 이외의 모든 사상과 주의를 추종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좌경모험주의로 몰아 그 일체를 배격하고 김일성의 생각과 행동만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였다.

第Ⅴ期는 80年代初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로서 第5共和國을 마친 南韓에서는 그 前期까지 강조되었던 經濟成長政策의 결과 실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으나 經濟第一主義,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 요령주의, 안일무사주의 등의 否定的인 價値性向이 만연되고 소득격차, 지역간 격차, 계층격차등이 조장되어 불만이 고조되는 등 思想, 價値觀, 規範등의 혼란과 갈등, 대립의 현상마저 있게 되어 이러한 對內的 混亂과 北韓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理念教育, 國民精神教育을 體系化, 組織化하고 統一·安保教育도 이러한 國民精神教育의 體系下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前期에 구축된 經濟發展의 토대 위에 더욱 박

차를 가하여 祖國先進化의 꿈을 실현하고 그동안 누적된 사상·가치관의 혼란상을 타개하며, 北韓共產集團의 무모한 武力挑發을 방지하고자 하는 二重·三重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民族和合民主統一”의 方案을 제시하여 북한과의 對話와 交流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이미 구축한 김일성 1人獨裁體制의 계승문제로 前期初부터 그의 아들 김정일을 부각시켜 오던 중 1980年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公式化하고 그같은 權力繼承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그의 偶像化 敎育을 일층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權力世襲化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어서 더욱 體制整備와 아울러 後繼者 構築을 위한 思想敎育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명실상부한 정권장악은 김일성 死後의 문제로서 아직은 미지수로 남는 문제이며 최근 강화하고 있는 金父子 偶像化 敎育의 효과도 더욱 뒤에 평가될 문제로 남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은 김정일 偶像化 敎育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以上에서 概觀한 南北韓 政治理念敎育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特徵의 性格의 것만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째, 南北韓의 政治理念敎育의 基本目標은 初期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異質的인 性格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 對立·敵對的인 성격의 것으로 굳혀져 왔다. 더우기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도발로 야기된 6.25 動亂 이후 줄곧 冷戰論理와 對決論理에 입각하여 相互不信하고 서로 否定하며, 공격과 타도일변도의 敎育을 지속하면서 南韓은



自由·民主理念과 體制의 우월성을, 北韓은 社會主義體制的 우월성을 강조하는 對立이데올로기教育을 지속 강화해 왔다.

그러나 南韓은 初期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民族傳統文化를 계승하고 開化期부터 일게된 韓國民族主義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自由·民主主義思想을 수용하는 방향의 教育目標로 一貫되어 왔으나 北韓의 경우는 民族主義를 배경하고 오직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社會主義社會建設者, 革命家를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의 目標로 일관되어 왔다. 南韓의 경우 民族主義教育과 民主主義教育을 조화하고자 하였으나 전자의 것은 傳統性, 固有性, 特殊性, 全體性, 保守性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의 것은 自律性, 個體性, 普編性, 開放性, 進歩性등을 요구하고 있어 傳統과 近代, 保守와 進歩, 全體와 個體, 特殊와 普編간의 조화를 이룩하기 어려웠던 것이며 때에 따라 어느 한쪽에 다소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어 다소간의 혼돈과 갈등, 대립과 마찰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향의 國民精神教育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구체화는 머지 않아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北韓의 경우는 우리 傳統文化와는 너무나 이질적이며 教理 自體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原則에 따라 體制와 制度를 수립하는 한편 人間을 개조하는 방향의 教育을 강력한 黨의 統制로 시도하고자 했으나 그들 역시 傳統的 價値와 規範, 慣習, 生活樣式등을 담은 傳統文化를 일시에 除去하지 못하고 오히려 住民들의 저항을 사게되고 혼돈과 갈등을 빚어 왔다. 말하자면 傳統文化 및 民族主義思想과 共產主義思想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갈등을 빚어 왔던 것이다. 이

러한 갈등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主體思想”을 명분으로, 그리고 “民族의 形式”에 社會主義文化 內容을 결합시킨다는 명분으로 전통적 요소를 다소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社會主義社會와 文化를 건설해가고자 하고 그들의 原則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양자간에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南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 그리고 그 목표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教育方法등을 比較하여 각기 갖는 長短點을 도출하면 南韓의 경우 그 長點은 家族關係를 비롯한 傳統的 生活樣式과 文化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점, 民族主義와 民主主義를 조화시키면서 점진적인 改善과 進歩, 發展을 시도하고 있는 점, 開放的이고 多元的인 價値와 文化를 受容하고자 하는 점, 그리고 人間尊重, 個性과 自律性伸張, 創意的 進取的 意慾과 能力을 최대한으로 신장하고자 하는 점 등으로 이를 바탕으로 발전이 촉진되고 국력이 신장되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長點은 또한 결점을 수반하는 것으로 가치관의 혼란, 불만과 불평의 조성, 統合·結束의 약화, 利己的 性向의 고조, 사치풍조 부정 부패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장점의 부수적이며 逆機能的 現象으로서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한 크게 문제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社會的 改革과 精神教育을 병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北韓의 長點은 全體를 위한 충성과 개인의 희생을 통한 統合, 結束, 動員등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점,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黨 統制機能이 강화되고 있는 점등을 들 수 있으나 이것으로 인하여

갖는 短點은 劃一性, 統制性, 폐쇄성, 경직성, 他律性 등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도 改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도 적어 南韓과의 體制 競爭과 正統性 對決에서도 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1人獨裁體制的 구축과 그 永續化를 위한 金父子 偶像化와 神格化 教育의 한계는 날이갈 수록 늘어나 그 효과는 그들이 기대하는 이하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長期的인 意味의 것이며 그 體制弱化以前에 武力挑發 可能性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例, 南北韓의 政治理念教育은 각기 갖는 統一政策과 관련이 있어 온 것으로 教育의 改善과 變化를 위해서는 政策의 變化과정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南韓의 경우는 初期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統一政策이 몇차례 變化되었다. 즉, 初期의 北進統一에서부터 北韓만의 선거, 그 뒤에 南北總選으로, 그리고 先建設 後統一, 漸進的·段階的 統一, 平和共存, 對話交流를 통한 信賴回復과 同質性 回復, 그리고 民族和合民主平和統一등으로 變遷되어 왔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武力統一, 赤化革命統一등의 야욕으로 一貫되고 있으며 聯邦制의 全民族大會議니, 高麗聯邦制니 하는 것은 純술적 目的인 선전·선동의 의미 이외의 것은 아니며 또한 對話와 교류제외에도 소극적이거나 선전·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외의 目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政策과 이에 따른 統一教育 내지 북한 의 도전을 의식하는 政治理念教育은 北韓이라는 相對를 前提하는 것 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말은 우리만의 理想을 주장하거

나 관찰하고자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말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理念과 體制에 수정이 있어야 한다거나, 東西獨과 같이 되어야 한다거나, 反共法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理想的인 主張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성급한 기대와 주장을 삼가하게 되고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Ⅲ. 教育環境의 變化展望

統一教育, 政治理念教育, 이데올로기 批判教育등 여러 명칭으로 시도되는 넓은 의미의 國民精神教育은 價値前提的 教育이면서 時代的, 社會的 要請에 의해서 시도되는 것으로 그 性格上 思想性, 綜合性, 時事性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같은 교육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價値前提的 原理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면서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教育環境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그 教育의 基本方向은 思想性和 같은 價値前提的 原理에 따라 설정될 성질의 것이며 그것이 教育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는 하나 時代的, 社會的 要請에 의해서 시도되는 성격의 教育이라는 점에서 教育環境의 변화와 社會的 要請의 변화에 전혀 무관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실상 단적으로 말하여 教育환경의 변화는 教育내용의 변화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前提로 여기서는 教育의 방향과 내용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教育환경의 변화를 國內外 政治狀況과 南北關係, 그리고 思想, 價値觀, 意識性向등을 포함하는 社會關係와 教育與件등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기로 한다.

첫째, 國內外 政治狀況의 변화는 상당히 流動的인 것으로 展望하게 된다. 이미 시작된 美·中關係와 中·日關係의 改善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有利하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의 國力伸張과 적극적인 외교 노력, 그리고 86·88國際競技의 개최등으로 우리 南韓의 國際的 地位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일

기 시작하고 있는 中·蘇關係의 改善과 北·蘇關係의 밀착, 美·蘇關係의 변화등은 극히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유동적인 國際關係가 南北關係 改善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國內의 政治狀況도 改憲論議, 與野關係, 學生騷擾 등의 事態進程이 불확실하여 政局安定을 전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南北關係는 對話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對立·對決關係는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南韓의 先導的이며 끈질긴 努力으로 서로간의 對話와 交流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소강 상태이기는 하나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기본적인 자세에는 변함이 없으나 國際的 輿論과 그 壓力, 그리고 그들 內部事情등으로 소극적으로나마 對話와 制限된 交流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심지어 대화와 교류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같은 가능성은 우리의 努力과 앞서 개관한 國際關係의 진정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南北對話와 交流의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信賴回復, 同質性回復, 和解·和合의 水準까지 남북간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은 상당한 기간까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北韓의 對南赤化戰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부득히 지속·확대될 對話와 交流를 戰術的 次元에서 이용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가능성을 立證할 수 있는 證據의 하나로서 종전까지의 이른바 「統革黨」을 「民族民主戰線」으로 개칭하여 우리 內部的 思想的 動向을 利用·선전·선동하여 南韓內部的 革命力量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內部的 사상적 동요가 없고 結束

이 강화되는 한 북한의 對南赤化革命의 전략전술은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세째, 우리 社會內部에 思想과 價値性向이 多元化되고 多樣化될 전망이다. 開放化와 國際的 進出·交流의 확대,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外來文化와 思潮의 영향 증대, 다양한 急進思想의 流入등으로 思想的 多元化는 물론 가치성향의 다양화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사상, 가치관, 규범의식등에 혼란과 갈등이 증가될 가능성마저 있게 된다. 더우기 産業化와 高度經濟成長의 촉진과 더불어 分配不均衡, 所得 및 貧富隔差와 階層間隔差등이 深化될 것이며 불만, 위화감이 조장되고 現實否定, 體制否定등 否定的 反抗的 性向을 갖게하여 過激急進思想에 同調할 가능성마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네째, 戰後世代 知識人 人口가 증가되고 이들의 進步的 思想, 價値意識등 性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종전까지 시도해 오던 反共教育과 이를 포함하는 국민윤리교육 내지 국민정신교육에 대해서 다소 懷疑的이거나 否定的 見解를 갖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6·25 未經驗者의 新進知識人은 이제 각계각층의 중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後世教育을 담당하는 各級學校의 教師중 이들 新進知識人이 곧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思想, 價値, 意識등의 性向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教育 全般의 改革意志와 努力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過密學級, 學校施設의 落後性, 교사의 잡무부담, 과열된 大學入試競爭, 知識爲主의 注入式 教育등이 단시일내에 해소되거나 개선될 가능

성이 미약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교육 내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한 價値前提的, 情意的 特性을 요구하는 統一教育 내지 政治理念教育의 효과는 감소될 것이다.

여섯째, 統一教育을 포함하는 政治理念教育, 國民倫理教育에 대해서 與·野 政治人, 宗敎人, 言論人등 知的 指導層간에 合意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教育的 努力에 대해서 일부이기는 하나 無關心하고 냉소적이며 부정적 성향이 있어 왔으며 이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욱 높아지고 증가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러한 경향 내지 知的 風土가 조성되고 있는 한 이 영역의 교육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된다.



#### Ⅳ. 問題의 診斷과 改善의 課題

앞서 概觀한 教育環境의 變化推移는 직접·간접으로 統一교육과 政治理念教育에 많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미 누적되어 온 問題들도 상당 수에 달한다. 많은 문제들 중에도 統一교육과 政治理念教育의 改善을 위한 方向設定에 직접 시사를 주는 改善되어야 할 問題들을 진단하면서 改善課題의 도출에 시사하는 바를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 教育對象者가 될 젊은 世代 내지 靑少年들이 갖는 意識性向上的 問題를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이 갖는 一般的인 意識性向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思想 및 價値性向이 多元化되고 進歩的 意識性向이 고조되고 또한 現實不滿 내지 現實否定 意識性向도 높아지고 있으며 獨立·依存, 自由·平等, 統制·自律, 保守·進歩, 傳統·近代 등 가치관과 規範간에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식성향이 바탕이 되고 있거나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意識性向上的 問題는 統一에 대한 懷疑, 統一意志의 弱化, 冷戰時代의 反共論理에 대한 不信 내지 拒否, 急進思想에 대한 關心高潮, 共產主義理論 특히 마르크스思想에의 同調性向, 國家理念에 대한 理解不足, 國家理念과 體制 優越性에 대한 信念不足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식성향은 그동안 실시해 온 統一교육 내지 政治理念教育의 결점에 의해서 형성된 점도 있지 않을 것이나 그 외에도 앞서 개관한 教育環境의 變化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形成 背景이나 原因 如何를 막론하고 이같은 의식성향을 修正 내지 變化시킬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앞서 지적한 教育環境을 改善하는 努力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노력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教育外的 環境問題 몇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개관한 “教育環境의 變化展望”에서 제시한 거의 모든 항목들이 統一教育의 改善를 요구하는 문제로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나 그중에도 통일교육에 보다 더 직접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産業化와 高度經濟成長, 開放化와 共産國과의 接觸과 交流促進, 그리고 南北韓 對話·交流推進등의 환경변화는 종전까지 실시해 온 反共教育, 理念教育의 限界를 갖게 하였으며, 戰後世代之 反共意識·統一意志·思想·價値·意識性向에 변화를 유발하게 된 것이며 나아가 統一 내지 理念教育에 대한 회의와 否定, 拒否등의 問題意識을 형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統一教育의 方向·內容·方法등의 개선에 이같은 환경변화의 의미와 이에 대처하는 방안과 그리고 환경적 요소의 개선을 위한 政策 내지 計劃과 그 실현을 위한 意志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政策 내지 그 실현 의지들이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했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해지고 높아진 慾求와 期待의 受容 政策이 미흡했던 점, 福祉政策의 靑寫眞 提示가 미흡했던 점, 與野의 政治的 對立이 계속되고 있는 점, 各계 지도층의 非理·不正·奢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中間指導層의 自律性和 責任性이 분명하지 못한 점, 中間指導層의 責任回避性向과 非民主的, 權威主義的 性向이 지속되고 있는 점, 各계 各층의 知的 指導者간에 統一·理念教育에 대

한 합의 기반이 약한 점등을 들 수 있다.

세째, 研究 教育課程, 教材, 敎員등의 영역에 걸쳐 있는 教育內的 問題들을 지적할 수 있다. 南北韓間的 對立 내지 敵對的 關係가 오래 지속되어 온 80年代前까지는 學者들로 하여금 理念·思想에 대한 研究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학자들 스스로도 이 영역의 研究를 忌避하는 경향마저 있었기 때문에 研究活動이 극히 不振했다. 최근에 와서는 연구기회와 지원이 늘어나고 學者들의 研究關心도 높아지게는 되었으나 研究開放措置의 日淺性和 資料의 制限性, 專門家の 不足, 공동연구의 풍토조성 미흡등으로 인하여 이 영역의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영역의 연구는 外國의 書籍을 번역·소개하는 정도의 初步的 段階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더우기 이 영역의 몇개되지 않은 研究機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연구기관과 敎育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相互間的 連繫性和 協調關係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敎育의 質은 研究의 질과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敎育의 질을 높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研究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敎育課程上的 問題는 上位의 國家理念들의 關係 定立問題에서 부터 民族敎育·民主敎育·理念敎育間的 關係, 上位理念和 統一敎育의 目標과의 關係 定立問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종전에 設定한 統一敎育의 目標 中에 “主體的 民族意識에 바탕을 둔 國家觀의 確立” 과 “民主主義理念和 體制 優越性에 대한 이해와 信念” 등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敎育內容으로 具體化 될 정도로 국가이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教材에 그것이 취급되어 있지도 않는 것이 교육의 현실이다. 따라서 學生들은 국가이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 우월성에 대한 信念도 부족하여 새로운 思想이나 理念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 急進思想에 同調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라 평가된다. 憲法에 一貫되게 명시되어 있는 民族·民主·平和·福祉主義 理念들간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잘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를 國家理念과 教育理念, 그리고 統一教育의 目標간의 관계, 統一·理念教育의 目標와 內容간의 體系性, 教育內容의 教科別과 學校級別 連繫性과 系列性等 體系化도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리고 各種의 教材內容과 教育方法의 효과성에 대한 實驗的 研究가 부족하고 學生들의 知的 水準과 意識性向을 教材內容과 教育方法에 反映하는 노력도 미흡한 상태이며 이같은 研究와 開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制度的 組織도 미흡하다 하겠다. 그리고 또한 教育의 中核的 役割을 담당하는 各級學校의 教師, 各種 研修機關의 教官, 大學의 教授, 그리고 研究 專門家등의 확보를 위한 養成制度도 미흡할 뿐만아니라 기존의 教師·教官·教授마저도 統一·理念教育에 임하는 자세가 소극적이며 士氣도 低下되고 심지어 萎縮되어 있는 실정이다. 各級學校의 教師養成制度가 늦게 (1981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그 졸업생의 配定마저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의 教師資質은 교육 배경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專門性이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째, 教育內容 構成上의 문제로서 앞서 지적한 문제 이외에 별도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理論과 實際”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몇차례의 논의와 主張들이 엇갈려 各級學校의 教材內容에 큰 혼선을 빚어 왔다. 특히 共產主義와 그 變容된 각종의 急進思想에 대한 批判教育을 위해 理論批判과 共產革命運動史 내지 共產國의 實相中 어느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理論批判 優先論이 우세했을 때는 各級學校의 教材內容에 理論批判內容이 크게 반영되어 취급되다가 實際批判 優先論이 우세해지면 그 방향으로 교재내용이 크게 改編되는 등 몇차례 거듭되는 반복으로 教育실시에 큰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 問題에 대한 代案은 뒤에 따로 제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支援·協調·調整體制上的의 問題이다. 研究活性化를 위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이 미흡할 뿐만아니라 기존의 研究기관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개의 研究機關이 教育機關 밖에 설치되어 있어 두 기관간의 協調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하고 있다. 따라서 研究와 教育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行政的 調整機能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第5共和國의 출범이후 여러 명칭의 教育을 종합,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努力이 시도되어 여러 명칭의 教育을 총괄하는 上位概念인 「國民精神教育」의 體系化를 시도하는 한편 各 部處間의 協調와 調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國民精神教育調整委員會」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그 실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推進委員會」까지 설치한 바 있어 협조와 조정기능이 종전보다 개선되기 시작하였다고 보겠다. 그러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그 기능이 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기능이  
民間團體로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V. 改善의 方向設定

南北韓間의 對話와 交流가 進行되고 그것이 확대될 것으로 展望되는 時代的 要請과 그 밖에 國內外的 政治·經濟·社會等 教育環境의 變化 推移에 따른 要求에 부응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教育內的 問題들을 改善하기 위하여 실로 많은 과제들이 있음은 앞에서 概觀해 본 바와 같다. 이러한 課題들은 教育外的인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教育的 課題 解決을 위한 方案의 提示에 만 국한하기로 한다. 이러한 制限된 目的에 따라 우선 教育改善의 方向을 設定하고 그 方向에 따른 教育目標 設定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教育內容의 構成에 대한 例示的 代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가. 方向設定

#### 1. 名稱의 改定

名稱이 初期의 滅共教育에서 부터 反共教育, 勝共教育, 統一教育, 統一安保教育등에 이르기까지 몇차례 변경된 바 있으며 現在에도 反共教育, 統一教育, 統一安保教育등을 혼용하고 있으나 “統一教育”이라는 명칭이 一般化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의 교육 내용은 道德教育, 國民倫理教育, 國民精神教育등에서 공산주의 비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등에 걸친 실상, 南北關係, 統一問題와 政策등의 명칭으로 취급하고 있다. 名稱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영역의 교육은 上位教育의 한 下位領域임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

영역에서 시도하는 教育의 目標와 內容이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前提로 보면 現在 一般化되고 있는 “統一教育”이라는 명칭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對話·交流時代에 부응하고 統一政策에 부응하며 冷戰時代에 실시한 反共 내지 統一安保教育에 대한 오인된 인식성향을 불식하고 思想的 多元化傾向을 開放, 受容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教育의 改善과 轉換을 명시하고자 한다면 그 名稱은 改定되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民族和合民主理念教育」 혹은 보다 더 간명하게 「理念教育」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할 것을 提案하게 된다. 그러나 명칭의 개정은 보다 심증을 기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명칭의 개정 제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의 모임에서 별다른 異見이 없었던 점도 지적해 둔다.

名稱의 改定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기 長短點이 없지 않으나, 보다 명확한 事實은 現在 一般化된 “統一教育”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기서 提案하는 새로운 명칭인 「民族和合民主理念教育」의 취지만은 反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말은 우리의 統一政策과 一貫되고 우리의 國家理念과도 一致되면서 對話·交流時代에 부응하는 의미의 民族和合民主教育은 統一教育의 方向으로서 受容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2. 國家理念과 體制의 優越性 確信 教育의 最優先

우리가 共產主義 思想에 反對하고 北韓의 共產主義體制를 批判하며 北韓 公산집단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國家理念과 體制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國家理念과 體



제의 우월성에 대한 理解와 確信을 갖게하는 教育이 무엇보다 先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같은 教育目標은 '73年度에 國土統一院에서 제작한 「統一教育教授要綱」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당시에 제시된 目標 중에는 主體的 民族史觀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國家觀”, “國家正統性에 대한 信念”, “民主主義理念과 韓國民主主義體制에 대한 優越性 確信”등 셋으로 분산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目標에 상응하는 內容構成에서도 國家理念을 정리하고 명시한 것이 없었다. 建國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憲法이 8次에 걸쳐 改正되기는 하였으나 基本的 理念은 줄곧 一貫되어 있었다.

그것은 民族·民主·平和·福祉主義 理念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이들 理念的 價値觀間의 關係를 분명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理念 整理와 體系化하는 研究努力이 없어 이를 教育內容에 具體적으로 反映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 國家理念의 形成過程과 그 正統性을 밝히고 民族主義的 傳統價値(固有性, 全體性, 排除性, 이데올로기성)와 民主主義的 價値(開放性, 普遍性, 個人性, 自由·自律性, 脫이데올로기성)과의 關係를 調和·整理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民族主體性과 民族正體性, 民族思想과 文化 傳統性과 國家 正統性的 確立 問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3. 思想的 多元化와 混亂 克服을 위한 理念·思想教育의 強化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北韓 共產集團의 思想的 挑戰은 물론 각종의 左傾急進思想의 影響으로 야기되고 있는

우리 社會内部的 思想的 混亂을 克服할 수 있는 能力을 함양하는 일이다. 學生運動을 주도하는 일부 과격 의식화된 학생들의 思想的 性向은 분명히 左傾思想이며 이것은 일부학생에게만 국한되지를 않고 各계 各층의 젊은 知識層에 확대되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이러한 思想的 動向은 복합적인 原因과 通路를 통해서 야기된 것이라 하겠다. 그 중에도 北韓 共產集團의 對南赤化革命 戰略戰術에 의한 의도적인 선전·선동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從前까지 시도한 우리의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의 限界性 역시 배재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理念과 體制를 위협하고 우리의 理想 實現을 위한 보람있는 努力을 방해하는 思想的 挑戰을 극복하고 能力을 육성하는 것은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에서 優先的으로 취급되어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같은 教育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內容과 方法을 구상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 대해서는 상당한 研究를 必要로 하는 것으로 쉽게 답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같은 思想的 動向이 야기된 原因을 규명하고 그 現在的 性格과 動向을 규명해야 할 것과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思想的 多元性을 어느정도 인정 내지 受容할 것이냐의 문제를 事前에 결정해야 할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思想的 混亂은 그 뿌리가 깊은 것이기는 하나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開放化에 따른 急進思想의 流入과 그 영향확대, 産業化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動, 相對的 隔差의 深化, 現實 不滿의 고조, 冷戰論理에 입각한 폐쇄적 思想教育, 그 教育담당

자의 위축, 思想問題에 대한 研究不振 등 복합적인 原因에 기인된 것  
이라는 점과 從前까지 시도된 反共論理 내지 思想的 統制에 입각한  
理念教育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등을 前  
提로 하여 여기서 提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政策的으로  
해결할 문제 즉 所得隔差의 해소와 그 밖에 불만해소를 위한 福祉  
政策은 최근에 政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면서 그같은 政策과 一貫하여 受容할 것과 단호히 受容될 수 없  
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思想的 多元性を  
전적으로 인정, 수용하는 방향의 政治理念教育을 실시할 수 있는 다  
른 先進 自由·民主國과는 달리 南北韓이 理念的, 思想的, 體制的 對  
決을 계속하는 準戰時狀態에 놓여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思想的 多  
元性を 전적으로 인정, 허용,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  
전과 같이 否定, 拒否 一邊到의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교육에 치중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이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思想的 教條化와 信念의 경직화에서 탈피하고 脫이데  
올로기化할 수 있도록 多元的 思想, 理念, 이데올로기들을 比較·批判  
하는 방향의 教育內容과 方法들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실상 이  
러한 方向의 이데올로기 批判을 위한 教材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  
으나 이들 教材들은 거의 대부분 外國書籍을 번역한 것이어서 우리  
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觀點을 수립하고 그에따른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4. 現實認識 能力과 社會問題의 民主的解決能力의 涵養教育의 強調  
急進思想에 동조하거나 思想的 混沌과 갈등을 느끼는 學生과 젊은  
知識人들의 意識성향은 겨우 대부분 現實에 대한 不滿으로 부터 출  
발한다. 현실 불만의식은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나아가 體制否定과  
急進思想에의 受容·同調性向으로 기울게 한다. 이러한 現實認識의  
問題는 앞에서 제시한 理念問題와 思想的 挑戰의 극복 문제와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 內容을 토대로 하면서 現實認識의 視角과 觀  
點을 정립하고 社會問題의 성격을 규명하며 그 解決 및 現實改善의  
方法을 구성, 제시하는 방향의 教育內容과 方法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5. “理論批判”과 “實際批判”教育의 比重 調整

“問題의 診斷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의  
중요한 內容영역의 하나로 취급되어온 共產主義 理論 批判과 共產黨  
史 내지 共產國의 實態 認識의 兩者中 어느 쪽을 더 강조한 것이  
나에 관한 의견의 不一致로 教育 실제에 큰 혼돈이 빚어져 왔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方案으로서 다음과 같은 原則을 제시해  
둔다.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에서는 “理論”과 “實際”의 批判教  
育을 併行하되 下級學年에서는 實際 批判에 역점을 두고 學年과 學  
歷이 높아질수록 理論批判教育의 比重을 높여가도록 한다. 그리고  
共產主義와 急進思想에 관한 理論批判教育의 비중을 높여가는 경우에  
서도 가급적 그 實際와 生活周邊의 實際的 事實과 問題와 관련지워  
이론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6. 上位 理念과 教育目標間의 一貫性確立

이 問題 역시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예가 있어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의 方向과 目標, 設定을 위해 再三 強調해 두고자 한다.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은 분명히 上位教育의 한 下位領域의 教育이다. 따라서 統一教育의 目標가 上位教育의 目標와 인접 教育의 目標와 서로 모순되거나 一致 내지 一貫性이 결여되는 경우 그 教育의 효과는 저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돈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最上의 理念으로 國家理念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教育理念과 一般教育 目標, 그리고 上位教育으로 國民精神教育의 目標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統一教育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統一政策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의 目標設定은 이들 上位理念과 上位教育의 目標를 具現하는 方向과 一致 내지 一貫되어야 하면서 統一教育에서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나. 目標設定(例示)

統一教育 내지 理念教育의 目標設定과 그 目標에 따른 內容構成은 다음의 論文에서 논의되고 제시될 성격의 것이나 여기서도 앞서 提示한 方向에 따라 目標設定의 한 例示를 해 두고자 한다. 다음의 論文에서도 統一教育의 理念定立과 그 方向設定, 그리고 그것의 正當화와 구체화를 위한 內容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논문의 요지와 일치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 논의와

보충 설명은 생략하고 教育目標을 항목별로 제시하면서 그 詳細化를 위한 下位目標와 內容要素를 例示해 보기로 한다.

〈目標 I〉 : 國家理念과 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認識과 信念確立

이 目標은 上位目標인 國民精神教育의 目標 「民族·國家 共同體意識과 愛國愛族精神 涵養」과 一致하면서 우리의 國家理念과 體制의 性格을 이해하고 그 우월성을 信念化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目標達成을 위해 요구되는 內容要素는 必要에 따라 上位目標와 관련된 內容들로 확대할 수도 있고 國家理念과 體制에 국한 시킬 수도 있다. 그 內容要素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內容構成〉

1. 民族正統性的 繼承과 發展
  - 民族史의 展開過程
  - 傳統文化와 傳統思想
  - 近代民族主義思想(開化思想의 形成과 展開過程)
2. 建國理念과 憲政史
  - 建國前後의 理念·思想的 葛藤
  - 大韓民國의 基本理念·民族·民主·平和·福祉主義
  - 大韓民國의 政治體制
  - 憲法의 歷史的 展開와 課題
3. 大韓民國의 正統性
  - 正統性的 意味와 背景
  - 南北韓의 正統性 對決
  - 國家理念과 體制 正統性과 優越性에 대한 信念

〈目標Ⅱ〉：現實認識 能力과 社會問題의 民主的 解決 能力 涵養

〈內容構成〉

1. 理想과 現實

- 理想實現의 努力過程
- 理想實現의 條件
- 理想과 現實과의 關係
- 現實認識의 基準(準據)
- 現實認識과 이데올로기

2. 現代産業社會의 問題

- 現代産業社會의 特徵
- 社會問題의 性格
- 社會問題의 類型
- 韓國社會問題의 諸特性

3. 社會問題의 解決方式

- 社會問題 解決의 課題
- 社會問題에 대한 態度
- 社會問題 解決의 民主的 方式

〈目標Ⅲ〉：思想의 諸樣相 認識과 그 挑戰 克服能力의 涵養

〈內容構成〉

1. 思想의 多元性

- 思想 및 이데올로기의 性格과 機能
- 思想의 展開過程：思想史의 概觀

- 思想의 類型
- 2. 共產主義와 그 變容 思想
  - 共產主義 思想의 本質 (名分과 實際)
  - 共產主義 思想의 變遷
  - 共產主義 思潮와 類型
- 3. 共產國의 實際
  - 共產國의 共產化 過程
  - 共產國 內部的 葛藤과 分裂
  - 共產國의 政治·經濟·社會的 現實
- 4. 思想的 挑戰樣相과 克服課題
  -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 急進思想의 浸透 背景과 過程
  - 思想的 挑戰의 克服課題

〈目標Ⅳ〉：北韓 共產體制的 實狀 및 對南挑戰 樣相認識과 自主·平  
和統一觀 確立

〈內容構成〉

- 1. 北韓 共產體制的 實狀
  - 北韓 共產主義의 特性
  - 北韓 共產體制的 非正統性
  - 北韓社會의 實情
- 2. 北韓 共產集團의 挑戰
  - 北韓의 對南 戰略·戰術



- 北韓의 對南工作 樣相
- 北韓 挑戰에 대한 對應姿勢

### 3. 分斷克服과 統一方向

- 分斷現實과 統一의 當爲性
- 統一理念과 方向：自主·平和：民族和合 民主統一
- 南北韓 統一政策 比較

〈目標 V〉：國際情勢 對應姿勢 確立과 安保意識 鼓吹

〈內容構成〉

#### 1. 國際關係와 韓半島

- 國際關係의 本質
- 國際秩序의 變化와 動向
- 周邊情勢의 變化와 韓半島

#### 2. 國際關係와 韓半島의 安保狀況

- 國際情勢의 動向과 展望
- 韓國의 對內外的 安保狀況
- 自主國防과 安保意識

#### 3. 國際協力과 韓國의 進路

- 國際關係와 國際協力關係 展望
- 國際協力과 國家發展
- 國際化 時代와 韓國의 未來

〈目標Ⅵ〉：國力伸張과 統一文化 形成意志와 使命意識 鼓吹

〈內容構成〉

1. 國家 現實과 目標

- 發展努力과 現存的 段階
- 民族共同體와 國家目標
- 共同體目標와 自我實現의 課題
- 開放化·國際化時代의 國家目標

2. 國家目標와 發展的 未來像

- 成熟된 民主社會의 實現
- 福祉社會의 建設
- 文化先進國의 創造
- 高度의 科學技術 産業社會의 展開
- 國際的 地位向上과 進取的 氣像

3. 統一文化 形成과 國民的 課題

- 民族傳統文化의 繼承과 發展
- 文化多元化 時代와 民族文化主體性
- 南北韓 對話·交流時代와 統一文化
- 統一文化와 統一意志
- 統一祖國의 未來像과 國民의 役割

# 統一教育理念定立斗 教育方向

成均館大 教授

梁 興 模



# 目 次

序 言 - 總 論 .....	45
1. 問題의 提起 - 「南北對話·交流時代를 向한 統一教育理念定立과 教育方向」設定의 必要性 .....	49
(1) 統一을 위한 肯定的인 變數의 可能性은 아직도 「不確實하다」 .....	49
(2) 「統一教育理念定立과 教育方向」設定은 南北 對話·交流時代に 照應하기 爲하여서이다. ....	53
(3) 統一觀의 混線을 止揚하기 爲하여 統一理念 教育은 重視되어야 한다. ....	58
2. 統一教育理念의 定立과 그 內容 .....	64
(1) 理念·思想·이데올로기의 區別 .....	64
(2) 統一教育理念定立을 위한 發想原則 .....	70
(3) 統一教育理念의 內容 .....	72
① 民族正統性의 繼承과 發展의 當爲性啓發 .....	72
○ 民族의 正統性이란 어떤 것인가 .....	73
○ 傳統文化와 傳統思想 .....	74
② 分斷경위의 省察과 分斷克服 및 自主·平和 統一觀의 確立 .....	82
○ 分斷경위의 省察 .....	82
○ 分斷克服 .....	83

○ 自主統一 .....	84
○ 平和統一 .....	86
③ 自主·民主主義理念과 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信念 .....	87
○ 自由와 法 .....	87
○ 民主主義와 主權在民 .....	89
○ 自由經濟와 市場經濟 및 自由競爭 .....	90
○ 財産權과 私有財産制度 .....	93
④ 國家의 繁榮과 福祉增進을 위한 積極的 參與姿勢 確立 .....	96
○ 國家의 變영과 國家안전보장 .....	96
○ 福祉國家의  건설 .....	98
○ 北韓 및 公산국가의 福祉 .....	100
⑤ 南北統一理念比較와 對話·交流時代에 있어서의 北韓의  대남도전에 대한 對應能力向上 .....	102
○ 韓國의 統一理念 .....	102
○ 韓國의 統一教育理念 .....	103
○ 北韓의 「統一理念」 .....	103
○ 北韓의 「教育理念」 .....	104
○ 北韓의 挑戰에 대한 對應能力向上 .....	105
3. 統一教育理念과 統一問題의 教育方向 .....	106
(1) 좋은 理念은 人類發展과 繁榮의 原動力이라는 것을 信念化하여 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06
(2) 平和統一과 對話의 當爲性 .....	110

(3) 統一文化의 形成 .....	113
(4) 提起되는 質問에 대한 答변 .....	118
結 論 - 理念教育의 重要性 .....	121





## 序 言 - 總 論

이 글은 「南北對話·交流時代를 向한 統一教育理念과 教育 方向」에 관한 論文이다. 論文의 內容은 1. 問題의 提起 - 南北對話·交流時代를 向한 統一教育理念定立과 教育方向 設定의 必要性 2. 統一教育理念의 定立과 그 內容 3. 統一教育理念과 統一問題에 관한 教育方向의 세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論文의 核心的인 強調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70年代이후 지금까지 南北對話와 交流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對話와 交流는, 「擬似對話」와 「擬似交流」의 성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對話와 交流의 前途 또한 매우 不確實하고 불투명하지만 70年代 이후를 일단 「對話와 交流時代를 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로 「南北對話와 交流時代를 向한」 反共·統一·安保論理는 時代的 性格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北韓이 對南赤化를 위한 폭력혁명을 변함없이 책동하고 그 전략·전술을 더욱 교묘하게 전개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北韓 및 共產圈에 對話 및 交流와 相互門戶開放을 부단히 促求하고 있고 그동안 中·蘇·東歐各국과 非政治的交流의 성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冷戰論理」로부터 脫皮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高次元의 理念定立과 그에 알맞는 教育을 위한 「合理的인 論理」가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종래의 「全面反共」·「全面否定」·「全面對決」에서부터 國內外的으로 보편타당한 「民族의

正統性繼承과 自由·民主·平和理念을 함양하는 理念教育」의 重視로 理念을 信念化하면서 民主統一을 志向하는 정신교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北韓으로 하여금 赤化革命을 포기하도록 하고 門戶를 開放하도록 促求하는 뜻의 理念的인 論理가 개발되어 이를 정신적으로 社會化하는 理念教育이 重視되어야 한다.

세째로 南北對話와 交流時代를 向한 새로운 論理로 理念教育을 강화하더라도 大韓民國의 國力의 要素(科學技術·노우하우·자연자원·경제발전·정치 및 社會안정·軍事力등)는 계속 均衡되게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네째로 필자가 各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用語의 개념이다. 理念, 이데올로기, 思想등은 우리 주변에서 別로 區別해서 使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用語의 概念을 우리 말로 定立했으면 하는 뜻에서 理念·이데올로기·사상·平和統一의·概念·平和統一像·統一理念·統一教育理念 등의 概念을 간단히 시도해 본다.

○ 理念이란 「窮極的인 목표를 달성함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상적인 信念體系」라고 규정한다.

○ 思想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意志가 굳어진 것」

○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정치·경제적인 主義主張(主義는 思想과 同一視하되 주로 정치적인 것임)」

○ 平和統一이란 「갈라진 祖國을 戰爭과 革命 그리고 暴力이 아닌 對話와 交流등의 平和的인 手段·方法을 통해 오해와 不信을 해소하고 信賴를 造成하며 南北韓同胞 누구에게나 정신적·物理的·物質

的인 위협·不安·공포를 느끼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統一 또는 그에 이르는 過程의 總體를 말한다」 지금까지 平和統一이라는 用語는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개념을 定立한 것은 없다.

○ 平和統一像은 「극도로 이질화된 理念과 社會文化가 민주국가의 정당정치에서의 당의 주장처럼 승화될만치 信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統一된 近代國家」를 생각해 본다. (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느낌이다. 그에 이르는 南北韓平和共存이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

○ 統一理念 내지 平和統一理念이란 「분단된 조국을 民族의 正統性(傳統文化와 전통사상)과 自由·平和를 理念으로 民主制度를 구현, 南北韓同胞가 不安·공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自主統一을 이룩하여 祖國을 번영시키는데 있다.」

○ 統一教育理念은 「분단된 조국을 民族의 正統성과 自由·平和의 理念아래 民主制度를 구현·南北韓同胞가 不安·공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自主統一을 이룩하여 祖國을 번영시키는 統一理念을 教育하는데 있다.」 이것은 「①民族正統성의 繼承과 발전의 當爲性啓發 ②分斷 境界의 省察과 分斷克服과 自主平和統一觀의 確立 ③自由·民主主義理念과 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信念 ④國家의 번영과 福祉增進을 위한 積極的 參與 자세 確立 ⑤南北韓統一理念 比較와 對話·交流時代에 있어서의 北韓의 對南 도전에 관한 對應能力을 向上시키는데 있다.」 이는 세련된 用語와 文章과 項目의 順位 등으로 여러차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統一教育理念의 教育方向은 (1) 좋은 理念은 人類發展과 버영의 원動力으로서 信念化해서 힘이 되도록 할 것 (2) 平和統一과 對話의 營爲性 (3) 統一文化의 形成 (4) 提起되는 質問에 대한 답변으로 요약해 보았다.

이 論文을 작성함에 86年 7月 4日과 86年 8月 8日 斯界의 전문가들과 두 차례에 걸쳐 「워크·샷」이 있었으며, 여기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했음을 밝힌다.

# 1. 問題의 提起 - 南北對話 交流時代의 統一教育理念定立과 教育方向設定의 必要性

(1) 統一을 위한 肯定的인 變數의 可能性은 아직도 不確實하다.

統一을 위한 肯定的인 變數의 可能性은 아직도 渺연하다. 현재 狀況에서 앞으로 10여년이면 西紀 2000年代에 접어든다. 지금 狀況에서는 世紀가 전환해도 南北韓 關係가 肯定的으로 變하리란 개연성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異質化된 南北韓의 理念 내지 社會文化는 좀체로 接近될 可能性이 어려운 반면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異質化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질화된 南北韓의 理念 내지 社會文化가 그토록 氷炭不相容의 상극처럼 격렬하게 對立되어 있는 것도 드물다. 현대의 分단국가로서 東西·西獨과 中共과 台灣을 들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戰爭 내지 緊張의 危險性이 높다.

또하나 南北韓 關係에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肯定的인 變化가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北韓이 期約없는 對南共產革命을 策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南北對話와 交流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목적에 있어서 南北韓은 아직도 同床異夢格이다.

한국은 「피는 물보다는 진하다」는 민족의 동질성에서, 이질화된

理念 내지 社會文化가 평화적으로 克服 또는 共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對話와 交流에 대한 希望과 기대가 있다면 이러한 것에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對話와 交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對南革命의 수단·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해결되리란 서신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고 共產圈중에서도 가장 閉鎖의이고 고전적인 獨裁를 일삼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對南戰術은 과거의 「人民民主主義革命」 전술에서 부터 소위 「民族的 民主政權」(民族民主化戰術)樹立이라는 아주 교묘하고도 차원높은 고등전술을 쓰고 있는 느낌도 있다. 이 전술전환(?)은 예의 직시할 必要가 있다.

이는 85年8月8日 北韓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지하당으로서 韓國國內에 조직되어 있는 양 날조하여 각종 대남 모략선전에 앞장서고 있는 이른바 「統一革命黨」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改稱하는 한편 대남흑색방송인 통혁당 방송을 「救國의 소리」로 改稱한 데서 把握할 수 있다. (85.8.10. 조선일보)

北韓이 「人民民主의 革命戰術」 아닌 「民族·民主化의 革命戰術」로 바꾼 것은 아마도 蘇聯이 第3世界政策理論으로 1960年의 모스크바 81개국 공산당회의에서 採擇하고 61年 22차 蘇聯共產黨大會에서 採擇한 黨綱領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을 採擇하고 있는 것 같다.

이때 「民族民主主義國家」라는 것은 「政治的 經濟的 獨立을 지키면서 제국주의와 그 군사블록에 반대하고 自國領內的 外國軍事基地에

반대하는 국가이고 獨裁的 통치에 반대하는 국가로서 人民에 광범한 민주주의적 權利가 보장되고 농지개혁과 기타 民主主義的社會改革의 立法化 및 政府의 政策決定에의 參加可能性이 보장되는 國家」라고 규정하고 있다. (現代 用語의 기초지식, 1986年版 自由國民社版 p.633)

그러나 그후 蘇聯은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길을 걸으면서 「非資本主義的 發展의 길」을 選擇할 것으로 보았으나 반드시 社會主義에 직결되지 않는다는데서 브레즈네프시대부터 「사회주의 오리엔티드(志向) 諸國家論」(Socialist Oriented Countries)으로 그 理論을 새로이 構築하면서 「社會主義革命에는 공산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第3世界政策理論을 내놓았다.

이는 86年2月25日부터 3月6日까지 열린 소련공산당 제27차 당 대회에서 採擇된 「새로운 綱領」에서 「社會主義 志向國家」로 變更되었다. ("New Edition Program" Moscow Pravda, 7 Mar. 86)

「民族民主主義國家」에 관한 引用이 길었지만 對南革命戰術의 목적은 大同小異한 것이다. 그러나 「民族民主化戰術」이란 매우 교묘한 것 같다. 이는 한국에서 미군철수와 非資本主義的 노선을 걸으면 어느 계층이라도 무관하다는 것으로서 비판적인 종교인, 지식인, 학생 자본가 할 것 없이 모두 일단 수용한다는 理論이 된다. 이는 現南韓情勢(86年現在)와 有關하다고 보여진다.

요컨대 北韓은 아직도 對南赤化革命을 拋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南北對話·交流를 向한 統一教育理念」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도무지 서광도 비치지 않고 실마리도 잡을 수 없는 시기에 「南北對話·交流를 向한 統一教育理念」은 그 누가 제시하더라도 現實性 있는 關心事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암담하더라도 국민이 내다볼 수 있는 「비전」(시각·포부) 특히 자라나는 後代들에 統一문제의 自初至終의 狀況判斷을 위해서는 勿論 그것을 비판 또는 創造的인 새로운 方法의 구상 그리고 統一의 意志를 信念化할 가치기준이 될만한 統一理念 내지 教育理念은 누가 연구하더라도 일단 定立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편 이러한 것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北韓의 도전에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며 우리 국민과 後代들은 결국 統一의 基準理念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또 앞으로도 南北對話와 交流는 결과적으로 어떤 成果가 반드시 이룩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依然히 沈滯와 擔保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南北韓關係의 시대적 성격을 일단 南北對話·交流時代를 向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照應할 수 있는 統一理念 내지 統一教育理念을 假說格으로 定立해보는 연구는 있을만한 것이다.



(2) 「統一教育理念定立・教育方向設定」은 南北對話・交流時代に 照應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러면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시대적 성격은 어쨌든 남북 대화와 交流시대로 규정한다면 이에 알맞는 통일교육이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교육할 것인가. 우선 이에 앞서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현금시대 또는 앞으로의 시대를 結果는 어쨌든 과연 남북 대화・교류시대로 向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어째서 통일교육이념의 정립과 그 교육 방향의 설정이 必要한가의 그 必要性부터 더욱 자세히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理念定立의 必要性이 있다면 우선 첫째로 남북 대화와 교류라는 시대에 照應하기 위해서이다. 조응이란 두개 사항이 서로 對應한다는 것으로서 英語로는 코레스폰덴스 (Correspondence), 역시 대응 또는 호응한다는 뜻이다.

남북 대화 및 교류와 통일교육이념과 그 교육방향은 서로 조응한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對話와 教育이 서로 밀접하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즉 남북 대화 및 교류는 통일교육이념과 그 교육 방향에 작용하는가 하면, 통일교육이념과 그 교육방향은 남북 대화 및 교류에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原則적으로는 理念이 설정되고 그 理念에 對話와 交流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기서는 先後가 뒤바뀐 감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統一理念 = 統一教育理念 → 教育方向이 먼저 정립 내지 설정된후 對話와 交流를 하는 것으로 體

系化하고 對話와 交流는 理念 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現今까지 또는 장차의 남북대화의 성격을 잠깐 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 가고자 한다. 現今까지 또는 앞으로의 남북대화·交流는 70年代 이전에 일체의 대화와 교류가 없었던 전면 단절 또는 전면 대결시대와 비교하면 南北對話와 交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적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70年代 이전 南北對話 또는 交流가 전혀 없었던 시대는 熱戰 내지 冷戰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現今까지의 對話 또는 交流에서 비록 어떤 성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화가 전혀 없었던 70年代以前의 熱戰·冷戰시대와 비교하면 어쨌든 조금은 다른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現在의 南北對話와 交流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정도는 이루어질 개연성은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對話·交流時代는 과거 對話가 전혀 없었던 熱戰·冷戰時代와는 어쨌든 區分해서 생각한다.

또 統一理念 그 教育理念은 좀체로 변동될 수 없는 기본적인 것이 라 하더라도 熱戰時代와 冷戰時代, 그리고 對話·交流時代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 順理라고 생각한다. 熱戰論理나 冷戰論理를 對話·交流時代에 적용한다면 더욱 현실감각도 없고 共感도 설득력도 줄 수 없다. 教條적인 융통성 없는 論理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現今時代 또는 앞으로의 時代를 對話·交流時代로 向하는 것으로 일단 규정한다면 이 시대전환에 따른 反共·統一觀·安保觀도 그 차원을 새로운 것으로 開發하고 현실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잘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冷戰이라는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에 격화된 美·蘇의 對立을 중심으로 자유세계와 공산권과의 전면대결을 의미한다. 이 대결에서는 戰爭 이외의 외교·경제·심리선전·군사원조등 모든 수단을 다하여 상대방에 대결하여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全力을 기울이는 것이다. (日本自由國民社販 1986年, 「現代用語의 基礎知識」 p.476), 冷戰論理란 全面對決을 위한 論議의 原理를 말하는 것이다. 原理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사상과 원칙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시금 제기되는 질문은 現今 南北韓의 狀況을 볼 때 과연 南北對話와 交流時代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다시말해 과거의 南北韓 관계에서의 冷戰 내지 熱戰(6.25)에서 南北韓 關係는 전환 내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회의적일 것이다. 南北韓의 긴장은 依然하고 통일은 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南北韓간의 간헐적인 對話와 交流가 있었지만 「擬似對話」 또는 「擬似交流」라는 점에서 조금도 質이 진전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진전되리란 어떤 징조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擬似對話」나 「擬似交流」는 對話와 交流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대화와 교류가 아닌 「類似對話」와 「類似交流」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對話나 交流를 하되 그 用語의 뜻이 다르고 목적이 전혀 다른 대화와 교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의사대화」나 「의사교류」라 하더라도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킬 개연성이 있는 반면 대화와 교류의 환상, 다시말해 어떤 합의와 조화가 이루어지리라는

實像과는 동떨어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Pseudo Communication”, A Modern Dictionary of Sociology by George A. Theodorson & Achilles G. Theodorson, A Bams & Noble Books, N·Y, 79, pp. 319 ~ 320)

따라서 南北韓간의 대화와 교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와 교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화와 교류의 결과는 지극히 불투명하고 不確實性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南北對話·交流時代라는 말이 현실감각을 줄 것인가.

그러나 南北韓간의 關係를 긴 眼目으로 고찰할 때 70년대 이전에는 대화없는 대결로서 그대로 冷戰이 계속되어 왔고 70年代 以後에는 對話있는 對決과 交流 또 擬似對話와 擬似交流라고 할 수 있고 80年代에는 70年代의 「擬似對話와 交流」가 계속되면서 韓國側에서는 적극적으로 對話를 촉구하는 한편 변칙적인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류(85年 9月) 등이 있었다. 그후 대화는 遲遲不振하다 하더라도 對話의 개연성은 否定할 수 없다. 한편 70年代 이래 南北韓간의 對話있는 對決이 지속되어 왔지만 北韓을 제외한 中共·蘇聯 및 동구공산권의 대표가 학술회의와 스포츠관계로 韓國을 방문하고 있고, 한국의 대표 역시 이들 地域을 訪問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사건건 對立해서 全面對決과 相互封鎖의 冷戰時代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中共과 韓國은 修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서신거래·교포의 왕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역사의 조류로 볼 때 閉鎖社會가 門戶를 開放하고 對話와 交流로 전환해왔다는 것은 누구나 肯定할 수 있다.

특히 南北韓은 차지하고서라도 여타 共產圈과 서방측(한국을 포함)과의 對話 및 交流의 개연성은 공산권의 경제적 필요성 즉 科學技術 및 資本을 서방측에서 導入할 수 밖에 없는 추세와 더불어 공산이데올로기는 수정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東西간의 對話와 交流의 개연성은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헝가리와 중공의 경우는 西方側과의 對話와 交流는 물론 서방측의 市場經濟制度의 일부마저 導入하고 있다. 특히 韓國의 경우는 始終一貫 門戶開放政策과 對話와 交流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現在 以後 南北韓간의 對話와 交流가 同床異夢格의 「擬似對話」와 「擬似交流」의 性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언제라도 冷戰(이는 어느 의미에서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음) 또는 熱戰으로 表現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동서관계에서 볼때 극히 제한된 것이지만 對話와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차피 南北韓關係도 70年代 以後를 對話·交流時代로 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비록 結果는 未知數에 속한다하더라도 對話와 交流時代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冷戰論理에서의 統一教育理念이나 教育方向도 南北對話와 交流를 前向的으로 肯定·積極推進하려는 韓國의 입장에서는 그에 照應해서 統一教育理念의 定立과 그 教育方向의 設定을 위해 研究할 必要가 있다.

또 對話·交流의 成果가 없고 그것이 언제 成事될 것인지 묘연하다하더라도 韓國은 70年代 以後를 對話·交流時代로 간주하는 것이 對內外的으로 명분상 또는 현실상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韓國의

平和적인 태도를 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話와 交流가 成功하든 안하든 일단 70年代와 80年代에 對話와 交流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2千年代를 向해서도 그 개연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어쨌든 冷戰論理에서 脫皮한 「南北對話·交流時代를 向한 보다 發展的인 統一教育理念」의 定立과 그 教育方向의 設定은 必要한 것이다. 다시말해 冷戰時代의 全面反共 즉 北韓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상종하지 않는 反共, 그리고 一方的인 滅共·勝共統一觀( 이는 민간운동에서는 있을 수 있음)에서 對話와 交流에 依한 平和統一, 그리고 平和統一은 이룩될 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도 安定된 平和共存정도까지는 이끌어가는, 또 최악의 경우 戰爭을 억지할 수 있는 「統一教育理念 및 教育方向」이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3) 統一觀의 混線을 止揚하기 위하여 統一教育理念定立은 重要視해야 한다.

「南北對話·交流時代를 向한 統一教育理念의 定立과 그 教育方向」을 設定해야 할 두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多樣하고 相反된 각종 統一觀의 混線을 止揚해 보자는데 있다. 아울러 大韓民國 국민만이 아니라 나아가 南北韓 6천만동포와 海外僑胞, 그리고 外國人이라 하더라도 客觀적으로 肯定할 수 있는 기본적인 統一理念을 定立하고 그로부터 統一教育理念을 활발히 추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統一教育理念이란 그보다 高次元의 統一理念에서 추출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統一教育理念보다 統一理念은 기본적으로 高次元의 理

念이다. 왜냐하면 統一教育理念은 統一理念을 教育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統一理念이든 統一教育이든 아직 定立된 것이 없다. 따라서 統一教育은 總論과 理念에서부터 講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各論에서부터 出發한다. 또한 政府에서 천명한 공식 통일방안이 있으나 그에 대한 理念定立이 先行되지 않고 體系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가운데 統一觀에 대한 混線을 일으키고 있다. 그 類型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例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先行해서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南北韓의 理念 및 統一理念의 異質化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이다. 南北統一理念의 異質化는 우선 간단히 北韓의 지금까지의 통일에 관계된 理念·戰略·戰術등을 圖表化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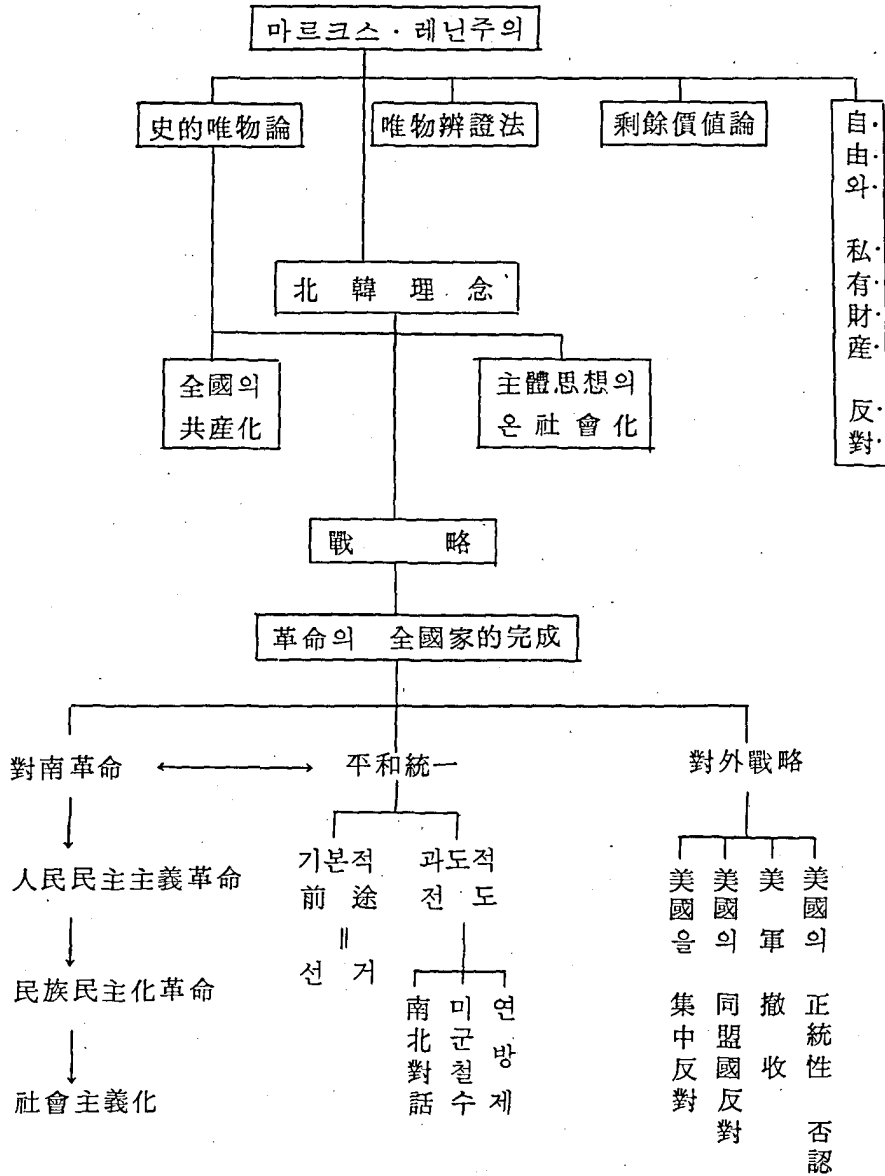
간단한 圖表이지만 北韓은 唯物史觀을 頂點으로 하는 哲學=理念→戰略→戰術을 한눈으로 그 體系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唯物史觀에 對抗할 만한 哲學이나 民族史觀이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唯物辨證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고 剩餘價値論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우리는 自由民主와 私有財産制度를 守護할 革命戰略이나 革命戰術이 아닌 哲學과 防禦戰略·戰術이 體系化 되지 못한 느낌이다. 國家理念과 統一理念도 定立된 것 같지는 않다. 그저 산발적으로 自由·民主·反共·安保·平和統一을 주장해 온 것이 아닌가.

가득이나 현실성이 희박하고 좀체로 그 실마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統一論議에 無體系의 各論式으로 教育하다보니 더욱 아리송하고 두엇

北韓의 統一理念과 戰略戰術





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自由·民主는 주장하되 安全權이나 所有權(財産權·私有財産制度)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問題는 이러한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多様な 가치관이 共存할 수 있는 社會이기 때문에 各樣各色的의 統一論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 機能主義的의 統合論 또는 收劍論
- 中立化統一論(永世中立化論)
- 中立化聯邦制
- 政府의 各 統一方案
- 交叉承認論
- 南北韓의 各種會談의 提議
- 民衆統一論 등등

어느 것을 보더라도 단편적이고 哲學이 담긴 理念을 上位概念으로 體系化해서 내놓은 것 같지 않고 各論格의 方法論인 것만 같다.

여기서 또 「黑白論」이다. 「정권차적원이다」 「체념」 「무관심」등 등의 온갖 논의와 見解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體系的인 統一教育理念 내지 哲學이라도 定立되어 있으면 成事 여부간에 理念의 論理에서 信念도 찾을 수 있고, 肯定·否定 등의 깊이있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分斷이 기약없이 장기화되는 한이 있어도 그 理念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信念化하며 또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최소한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北韓의

부당한 革命策動이나 戰爭을 억지하여 현상유지라도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容共的인 統一論, 적어도 國家安保라는 次元을 전면 도외시한 계급혁명을 전제로한 통일론도 있다. 한편 中立化統一論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것 같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라는 관점과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옹당 肯定할 수 있지만 南北韓의 理念과 社會文化가 이토록 격심하게 異質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우 과연 韓·美安保體制가 中立化로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中立化統一論은 自由黨時代부터 제기되기도 했지만 요즈음 특히 海外僑胞學者들간에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中立論의 경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세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所有權이다. 私有財産 또는 身分의 安全保障등 自由民主保障이 확실한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各種 理念이 共存할 수 있는가. 세째로는 이것이 國際的으로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北韓이 지난 40여년동안 한국에 도발한 歷史를 생각하고 심지어 交叉承認까지 거부하는 지금 그것을 논의할 시기는 아직도 상조인것 같고 그것을 논의함으로써 韓·美安保體制를 파괴하려는 北韓主張에 휘말려 갈지도 모른다.

더우기 北韓은 共產聯邦制를 내놓으면서 中立化라는 것을 10個 政策(10대 시정방침)을 내놓고 있다. 뿐만아니라 北韓이 54年의 제네바 19個國 政治會談 이래 始終一貫 내놓는 것이 미군철수이다.

그러나 中立化를 하더라도 自由經濟와 財産權保障의 明示가 分明해야 한다. 이는 오지리·스위스·스웨덴은 처음부터 이를 明示하고 있

다. 中立化統一論의 例를 들었지만 南北對話·交流時代일수록 統一論이 活性化되면서 자못 混線을 이루고 있는 잡다한 統一觀의 亂脈相은 止揚해야 할 것이다. 모든 가능한 頭腦와 힘을 기울려 大多數國民이 호응하고 심지어 北韓同胞나 世界的으로도 共感을 줄수 있는 統一理念이 定立되고 그를 教育할 統一教育理念도 定立되고 그 教育方向이 하나의 샘플로 提示될 必要가 있다.

## 2. 統一教育理念의 定立과 그 內容

### (1). 理念·思想·이데올로기의 區別

統一教育理念의 定立에 앞서서 用語들에 대한 概念풀이가 중요할 것 같다. 社會科學의 用語는 그 개념을 규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추상적인 用語일 경우 아마도 그 개념(대강한 뜻)은 소위 學者數만큼 많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統一 教育理念을 정립함에 앞서서는 우선 「理念」「思想」「이데올로기」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말 사전」에 나오는 理念의 개념부터 살펴본다. 「우리말 사전」을 引用하는 이유는 많은 學者들의 多樣한 해석보다 우리 民族이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理念이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관념」 또는 「경험을 초월해서 순수한 理性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경험을 統一하는 최고의 개념이다」(「새 우리말 큰 사전」下三省出版 80年, p.2659) 아마도 다른 나라의 사전에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의 經濟·社會·宗敎學者인 「막스·베버」(Max-Weber 1864-1920)가 1936년에 발표한 「社會科學方法論」에서 말한 「理念型」(Ideal Typus)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다.

이는 막스·베버가 理念이라는 것을 「沒價値論」 또는 「가치중립론」에서 찾는 것이다. 즉 理念이라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간추려 만든다는 것이다.

단순히 理念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찾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統一理念이라든가 統一教育理念에는 「가치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뚜렷한 目標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理念」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싶다.

『궁극적인 目標가 될 수 있는 최고가치의 이상적인 信念體系』

「統一理念」의 경우는

『統一 또는 그 過程을 위해 궁극적인 目標가 될 수 있는 최고 가치의 이상적인 信念體系』

「統一教育理念」은 『統一理念을 教育하기 위한 教育理念으로서 궁극적으로 目標가 될 수 있는 최고가치의 이상적인 信念體系』(이는 本題의 中心이며 앞으로 자세히 定立함)

여기서 「信念體系」라는 用語를 사용했으나 필자 자신이 用語의 개념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당돌하게 풀이하면 『信念化하여 힘으로 승화될 때까지의 過程에서 보편타당하고 當爲性和 實現性등을 모두 포괄하는 믿음의 계통』으로 말하고 싶다.

어떤 理念이든 그것을 定立하는 立場에서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체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생각해야 한다. 또 그것은 實現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目標가 될 수 있고 信念化하여 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理念은 단지 관념상의 한가지 생각에 지나지 않

고 실제로 쓸모가 없는 것이다. 특히 統一教育理念은 信念이 됨으로써 힘을 발휘하는 實現性과 實踐性이 함축되어야 한다. 이는 마치 독실한 宗敎人이 信仰이 굳어져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理念敎育 또는 理念的인 精神涵養에서 궁극적으로 目標해야 할 것은 理念을 구두전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 信念化하는 「힘으로 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다음 思想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주변에서 思想이란 用語는 理念이나 이데올로기라는 用語가 導入되기 훨씬 이전에 널리 사용한 말이다. 그래서 理念이나 이데올로기는 다같이 思想에 포함되는 것이다.

思想이란 「우리말 사전」을 보면 「생각」 또는 「판단과 추리를 거쳐서 생긴 「意識內容」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59년, p.614)

그러나 思想이란 中國의 國父 孫文이 「三民主義」라는 著書에서 자못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본다.

『主義란 무엇인가. 주의는 일종의 思想이요, 信仰이요, 힘이다.

무릇 사람이 어떻게 한가지 일에 관하여 가장 알맞는 일을 研究하면 제일 먼저 思想이 발생하며, 思想이 철저해지면 곧 信仰이 생기고 信仰이 있으면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主義란 곧 思想으로 시작하여 다시 信仰에 이르게 되고 다음은 信仰에 비롯하여 힘이 생기며 그런 연후에 완전히 成立되는 것이다.』(孫文著 李明九譯「三民主義」 蔡之箱 71年, p.71)

간단히 말해 孫文은 思想이란 어떤 일을 研究할 때 「생각이 굳어지는 것」을 말한다. 또 思想이 철저하면 信仰이 생기고 信仰은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理念과 思想을 비교하면 理念은 思想에서 나오되 『궁극적인 目標가 될 수 있는 최고가치의 이상적인 信念體系』라고 할 수 있다. (理念은 앞서 간단히 말한 것과 같다)

그다음 이데올로기란 어떤 것인가. 이데올로기란 用語는 우리주변에서 「이데올로기」를 批判할 수 있는 教育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大學이데올로기 批判教育 教授協議會』가 創設되고, 大學의 「國民倫理教材」에 「이데올로기의 本質과 批判」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國民倫理」韓國國民倫理學會編 螢雪出版社 86年, pp. 327-352)

그 내용은 「이데올로기의 本質과 批判」이라는 「章」 (제Ⅱ부 제1장)에서 제1절 이데올로기理解의 前提 (1. 政治現實과 이데올로기 2. 이데올로기 理解의 含意), 제2절 이데올로기의 意味와 歷史 (1. 이데올로기의 意味 2. 이데올로기의 歷史), 제3절 이데올로기의 機能, 제4절 이데올로기의 類型과 批判的 視角 (民族主義·民主主義·自由主義와 保守主義·共產主義·社會主義·파시즘과 國家社會主義·無政府主義) 등이다.

이 教材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며, 특히 「비판적인 視角」을 가져야 한다고 明示한 것이다. 다만 필자의 소박한 개인의견이지만 「이데올로기」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는 없는 것일까. 또 번역한다면 어떤 用語가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라는 用語가 프랑스의 계몽주의 唯物論者요 철학자인 트

라시 (Destuift de Tracy , 1754 - 1831 )가 이데올로기 概論 ( Eléments Ideologie , 5 Vols 1801 - 15 )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것이다. 그는 「 이데올로기 」란 「 관념의 형성과정을 심리학적 요소로 설명하는 科學 」이라고 생각했다. ( 日本有斐閣 社會學辭典 58年, p.31 - 33 )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트라시의 이데올로기 概論을 「 理念들의 科學 」( 上掲 國民倫理教材 p.338 )이라고 하여 이데올로기와 理念을 原初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주변에서는 「 이데올로기 」와 理念을 주문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實情인것 같다.

이는 이데올로기를 「 兩價性 」( 비판과 긍정 )을 지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理念을 同一視할 것이 아니라 「 관념형태 」 또는 「 사회의식 」 아니면 「 主義主張 」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우기 앞서말한 「 理念 」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 主義主張 」하면 오늘날의 각종 主義( ISM )가 포함된다. 그러나 필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 데모크라시 」를 「 민주주의 」로 자유( 프리담 또는 리버티 )를 自由主義로 「 ISM 」이라는 것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民主「 主義 」 또는 自由「 主義 」라고 한다. 어떻게 되어 데모크라시의 본래의 뜻은 「 人民主權의 民主制度 」 또는 「 政治 」를 말한다고 보겠는데 玉石同架格으로 共產主義 · 自由主義 · 民主主義식으로 同列에 놓고 생각하는 것인지 좀 이상한 느낌이다.

데모크라시는 「 民主制度 」이기 때문에 主義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制度라는 것은 法에 의해 規制되는 外的規範(罪刑法定)이며, 이것과 절대적 倫理를 가지는 宗教的敎理에 代表되는 內的規範과 혼동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日本 文藝春秋 86年 9月號, pp. 462-463)

그러나 데모크라시를 우리나라에서도 「주의」로 번역한다고 해서 지금 異議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데올로기」를 「主義主張」으로 번역하는 것이 理念과 구별 될 수 있다는 데서 필자는 그렇게 (主義主張) 생각해 본다. 더우기 이데올로기를 理念으로 번역할 때 여기서 말하는 「統一이데올로기」 「統一敎育 이데올로기」하면 더욱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더우기 미국의 정치사전을 보면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정치 또는 사회행동의 의식체계로 풀이 되었으나 요즈음에는 정치적 用語로 사용되 인간 精神을 拘束하거나 철학적으로 편협한 자들 (Philosophicall Narrow-minded)을 위한 엄격한 통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William Safire's Political Dictionary, Ballentine Books N.T. 80, pp. 320-321)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좋지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그 해석 여하간에 여기서 논하는 「統一敎育理念」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 理念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함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상적인 信念體系」
- 思想은 「이성적인 思考와 판단으로 意志가 굳어진 것」
- 이데올로기는 「사회(文化)·정치적·경제적 主義主張」으로 개념 짓는다.

## (2). 統一教育理念定立을 위한 發想原則

「南北對話·交流를 向한 統一教育理念」을 정립하고 그 「교육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특히 統一教育理念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그 배경과 淵源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을 統一教育理念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등을 두루 생각할 때 이들에 관한 發想의 原則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逆으로 定立된 統一教育理念의 배경과 연원과 定立의 동기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 發想原則은 어떤 것들인가를 생각해 본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70年代이후 앞으로의 시대적 성격을 冷戰論理에서 벗어난 對話와 交流時代로 想定한다.(이에 대해서는 前記한 바 있다)

② 統一은 南北對話와 交流를 통한 平和統一이어야 한다.

③ 平和統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定立해 본다.

『平和統一이란 갈라진 祖國을 戰爭과 革命 그리고 暴力이 아닌 對話와 交流등의 平和的인 手段方法을 통해 오해와 不信을 解消하고 信賴를 造成하여 南北同胞 누구에게나 정신적·物理的·物質的으로 위협·不安·공포를 느끼지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統一 또는 그에 이르는 過程의 統體를 말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有效假說로서 案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④ 統一教育理念은 南北韓 동포 즉 우리민족 大多數가 共感하고 合意를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의 개연성은 現時點에서 찾기 힘들지만 한가지 例를 든다면 民族의 傳統文化 내지

전통사상은 좋은 예이다. (전통사상은 전통문화에 포함시켜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文化에는 사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⑤ 아울러 統一教育理念은 世界的으로도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이의 대표적인 例는 自由·平和의 理念과 民主體制를 들수 있다.

⑥ 民族의 장래에 비전(未來의 희망)을 주며 번영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인상이 있어야 한다.

⑦ 그러나 이상의 것들이 統一教育理念定立을 위한 바람직한 原則이라 하더라도 지금 또는 앞으로 상당기간 北韓은 敍上한 것들과는 달리 戰爭 또는 革命을 책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억지할 수 있는 方法으로 對話와 交流에 병행해서 「힘」과 同盟國과의 제휴로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看過해서는 안된다.

⑧ 統一教育理念에 우리의 國家理念과 統一理念(이는 統一教育理念과 大同小異) 그리고 韓國의 「教育法」에 明示된 教育理念, 그리고 上記한 것과 유사한 北韓의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對話交流時代에 알맞는 反共·統一觀·安保觀을 科學的으로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⑨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거의 일치해서 教育理念이 될 수 있는 眞·善·美·聖의 가치와 이를 教育하는 「全人的인 教育」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⑩ 統一教育理念은 추상적인 用語로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用語는 아니다. 따라서 統一教育理念은 「統一을 위한 궁극적인 目標로서 이상적인 信念體系」이되 그것은 보편타당성을 위시해서 實現性·當爲性을 지니는 것으로서 즉 實現 또는 實踐해야 한다는 것을 생

각하고 信念化하여 事實상 「힘」으로 승화될 수 있는 用語로 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 (3). 統一教育理念의 內容

이상에서 統一教育理念의 定義을 위한 發想原則을 말했으나 여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統一教育理念은 다음 다섯가지로 摘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民族正統性的 繼承과 發展의 當爲性 (傳統文化를 繼承·發展시켜야 한다.)

② 分斷경위의 성찰과 分斷克服 및 自主·平和統一觀의 確立

③ 自由民主主義理念과 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信念

④ 나라의 번영과 복지증진을 위한 積極적 참여 자세 확립

⑤ 南北統一理念 比較와 北韓의 對南挑戰에 관한 對應能力 向上

이들 5개사항은 統一教育理念의 주요항목들이지만 이보다 높은 차원의 統一理念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필자는 統一理念과 統一教育理念은 그 內容에 있어서 거의 同一하고 「教育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 統一教育理念이라고 할 때는 「統一理念」을 教育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敍上한 5大 統一教育理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할까 한다.

① 民族正統性的 繼承과 發展의 當爲性 啓發

이것은 民族의 正統性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繼承·發展되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왜 繼

承·發展해야 하는가의 當爲性을 말하는 것이다.

○ 民族의 正統性이란 어떤 것인가

영국의 政治學者 「어네스트·바커」(Earnest Barker)는 1942년에 발표한 「政府에 관한 省察」(Reflection of Government)이라는 著書에서 『民族的 동질성은 言語·地緣·傳統文化·經濟가 같은 것』을 말하고 『異質的인 民族』은 『言語·地緣·傳統文化·經濟양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異質的인 民族이라 하더라도 社會文化가 同質化되면 하나의 國民 또는 國家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本 産經新聞 86年 2月9日字「正論」猪木正道)

이러한 것은 先進된 多民族國家에서 볼 수 있다. 돌이켜 우리 民族을 보면 言語·地緣·傳統文化·經濟生活이 같은 단일민족이다. 수 천년동안을 같이 살아온 單一民族이 분단된 것은 北韓에 우리의 歷史와 傳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共產主義(마르크스·레닌주의)가 도입 됨으로써 民族은 分裂되고 社會文化(理念포함)는 이질화 되었다. 北韓은 民族이라는 개념도 傳統的인 것과는 달리 프로레타리아 民族과 부르조아民族등 계급적으로 2分化하여 부르조아民族은 타도의 대상으로 적대시한다.

「民族의 正統性」이란 「傳統文化를 올바르게 繼承해서 發展시키는 것」을 말한다. 正統性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올바른 계통」 나아가 「정당성」과 「신뢰성」 「합법성」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民族의 正統性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후 南北韓이 분단되면서 北韓의 社會文化가 이질화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그 이전

에는 單一民族·單一社會文化로서 지속되어왔다.

○ 傳統文化와 傳統思想

傳統文化 내지 傳統思想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연면히 전승되는 것이 있다. 傳統文化가 연면히 繼承되는 이유는 장기간의 경험에 비추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傳統文化 내지 傳統思想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傳統文化의 神話性」 「傳統文化의 宗教性」 연면히 흐르는 「自主獨立思想」과 「近代의 開化思想」에서 찾을 수 있다.

「傳統文化의 神話性」 어느나라나 神話を 가지고 있다. 우리민족은 檀君神話を 가지고 있다. 神話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주라든가 인류 내지 민족의 기원이나 자연계와 人間세계의 여러가지 事象등을 초자연적인 神의 활동의 결과로서 설명하는 說話를 말한다. 說話라는 것은 인간들사이에 말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說話는 神話만이 아니라 傳説·옛날 이야기·民話등이 포함된다. 神話는 원시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制度化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民族의 기원 또는 民族史觀이 된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開天節이 制度化되어 있고, 단군의 弘益人間思想은 教育法에 밝힌 바와 같이 教育의 理念이 되어 있다.

또한 거의 모든 宗教의 信仰은 神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神話는 서구에서 16세기말 영국에서 부터 시작되어 프랑스를 휩쓴 계몽주의시대 에서는 宗教와 神話を 결국 무지와 미신 또는 잘못된 것으로 一笑에 불이거나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때는 무엇

보다 理性을 존중하고 기독교 교회에 의해 代表되는 古來의 정신적 권위라든가, 비합리적인 것을 비판하고 이성의 계몽을 통해 人間生活의 진보와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宗教·政治·社會·教育 등의 諸分野에서 舊習을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人間事 모두가 理性으로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理性으로 인류와 민족의 기원, 인간의 탄생등을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科學이 發展한 오늘날의 시대라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理性에 의한 판단에 自信이 없어지고 그럼으로서 理性에 대한 회의가 생김으로써 神話에 대한 意義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사회학의 교조인 「오우규스트·콩뜨」 (Auguste Conte 1798 - 1857) 는 神話의 의미를 제일 먼저 학자로서 인정한 서양의 사상가였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神學的단계→形而上學的 단계를 거쳐 실증적인 단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 모험의 產物로서의 神話가 없었더라면 그후 일체의 정신적 진보는 不可能했다」고 말했다. (清水幾太郎編 「現代思想辭典」, 講談社 (83) 現代新書 p.375)

또 프랑스의 人類學者인 「크로스·레비스트라우스」 (Claude Levi-Strauss 1908 - ) 는 「野生の 思考」(La pensée Sauvage 1962) 라는 저서에서 『神話는 정밀과학보다도 1만년 이상이나 그 옛날에 確立된 것이지만 그 성과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依然히 우리들 文明의 基層이 되어있다』고 말하고 『그것은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世界の 古典名著總解説 增補新版 日本 自由國民社 81年 p. 289. )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민족의 전통사상으로서의 檀君神話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단군사상은 「敬天崇神思想과 弘益人間思想으로 요약되고 있다. 敬天崇神思想은 하늘을 숭상하는 사상이다. 우리민족의 美風良俗인 祭禮는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自由·民主思想과 接木될 수 있다.

또 분단된 우리 조국을 平和적으로 統一하거나 分斷의 고통과 비극을 극복함에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본사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족의 조상은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傳統文化의 宗教性 전통문화와 전통사상에서 宗教가 가지는 위치는 매우 重要하다. 宗教는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민족의 宗教는 內生的인 것이 있고 外生的인 것이 있다. 外生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土着化됨으로써 우리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佛敎·儒敎·기독교등은 오늘날 많은 信徒를 가지고 있는 宗教이지만 外部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外部로부터 도입된 宗教에서 傳統文化와 傳統思想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결국 오랜 세월이 걸쳐 土着化되어 우리민족 思考와 生活樣式이 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傳統文化와 思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佛敎가 도입된 것은 고구려는 372년(소수림왕 2년) 백제는 384년(침류왕 원년) 신라는 527년(법흥왕 14年)이었다.

유교는 대체로 李王朝時代에 도입되었고 기독교중 天主教는 1784년 李承薰이 북경에서 「영세(베드로)」했을 때부터이다.

우리나라에 土着化된 불교의 傳統思想은 「和·諍정신」(人和와 갈등의 조화 또는 개체와 전체의 조화), 유교의 의리정신(예의와 도



덕정신) 기독교의 人間愛정신등의 다층적인 사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天道敎의 「人乃天思想」은 敬天思想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종교에서 나오는 정신들은 역시 다같이 오늘날의 自由·民主思想에 接木될 수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그 정신을 찾고 있지만 東洋에서 日本·韓國·대만이 번영하는 것은 유교文化圈의 倫理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自主獨立思想 우리의 「三國史記」나 「高麗史」 「왕조실록」등에 기록된 外侵의 수난은 무려 9백31회에 이른다. 「조선시대」만도 3백60회에 이른다. (86.8.6 동아일보 「황실수설」)

지정학적으로 주변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면서 많은 침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歷史의 기록은 外侵에 대해 民族抗爭을 거듭, 自主獨立을 견지해 왔다. 때로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外部 침략이 있을 때마다 自主獨立思想은 굳어진 것이다.

특히 近代에 접어들면서 1905년 11月.17日 乙巳보호조약으로 國運이 기울러지게 되자 民族自決과 主權平等을 요구하는 自主獨立思想은 줄기찬 抗日鬪爭으로 전개되었다.

을사보호조약 직후 皇城新聞은 1905年 11月 20日자 사설로서 張志暎 집필의 「是目也放聲大哭」(오늘이야말로 통곡하노라.)는 유명한 사설을 게재했다.

뒤이어 1905年 11月 30日 오전 4시 忠正公 閔泳煥先生은 통분을 참을 길이 없이 自決했다. 뒤이어 전국방방곡곡에서는 義兵이 일어났다. 1907년 12月부터 1909년 6월까지 약 1년반동안 (1909년 1月 제외) 의병이 일본 警察과 교전한 횟수는 3,714 회이고 여기에 참

가한 의병의 연 인원수는 121,360 명에 이르고 있다. (朴成壽「독립운동사 연구」창비신서 72年, p.169.)

당시 충청북도 경찰부장을 하고 있었던 일본인 今村鞆의 기록에 의하면 1907년 이후 약 2년간 의병의 사상자가 4,500 명으로 되어 있으나(姜在彦「朝鮮의 讓夷와 開化」東京·平凡社 1977 p.220.) 釋尾東邦의 「朝鮮併合史」(姜在彦 앞의책 p.220.)에는 1907년 8월부터 1909년말까지 전사한 의병수만도 16,700 명이고, 부상자수는 36,770 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기간동안의 일본측 군경의 피해는 日人 127 명, 한인 52 명, 부상은 日人 252 명(今村鞆) 한인은 25 명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일본 경찰측이 일본의 피해를 減數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도의 차는 무기의 양과 성능의 차에서 온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 결과야 어쨌든간에 침략을 위한 현대적 군대와 민족자방 항거 조직체간의 싸움은 사실상 민족전쟁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黃性模著 「知성과 近代化」 서울大學校出版部 86年, p.119.)

이러한 義兵運動이후 항일투쟁은 3.1 運動→上海臨時政府→新幹會運動→滿洲를 중심으로 한 民族主義者의 武裝鬪爭(北韓은 金日成만이 투쟁한 것으로 歷史를 왜곡하고 있음)으로 이어졌다.

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된것은 1919年 4月 17日이었다. 신간회운동은 1927년에 조직되었다. 30年代 만주를 中心으로 민족주의자들의 抗日鬪爭을 金日成이 자기가 한 것으로 날조했다는 것은 李命英著「權力の 歷史」 제3장 金日成一家 경력의 眞否, pp. 215-271. (成大 出版部 84年)에서 자세히 밝혀지고 있다.

近代開化思想 우리민족의 傳統文化와 傳統思想을 고찰함에 있어서 近代 開化思想 또한 특이하지 않을 수 없다. 近代開化思想은 두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國內外的으로 開放社會를 志向한 것이고 또 하나는 近代化를 志向한 것이다.

동양 3국 한국·일본·중국이 時差는 있지만 西歐各국의 강요에 의해 門戶를 개방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방한 것은 1876의 日本과의 丙子修好條約을 체결했을 때이다. 일명 강화도조약이라고 한다. 1875년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것이다.

美國과는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고, 英國과는 1883년 한·영수호통상조약, 러시아와는 1884년 한·러수호통상조약을, 같은 해에 한·이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독일과는 1883년 한·독수교통상조약을 체결했고 프랑스와는 천주교 박해사건 때문에 수교가 늦어져 1886년에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西歐列強과의 수교는 당시 쇠국정책에서 開放政策으로 나아가는 一大 전환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開放된 사회를 지양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

「개방된 사회」와 「폐쇄된 사회」 「개방된 도덕」과 「폐쇄된 도덕」을 학문적으로 定立한 학자는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 - 1941)이다.

그는 1932년에 「道德과 宗教의 2源泉」에서 우선 「폐쇄된 사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內的으로 엄격한 계급제도와 강대한 首長權을 가지고 사회적 의무 체계(폐쇄된 도덕)를 가지고 社會로부터의 개인의 이탈과

배반을 구속·위압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自衛攻撃의 태도를 가지는 폐쇄사회이다. 따라서 유체의 제 세포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없고 고정적으로 상호의존하되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發展이 있을 수 없는 自然社會이다』(日本有斐閣 社會學辭典 58年 p.674.)

이와 반면「개방된 사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부적으로 폐쇄사회처럼 사회성원의 자유를 억압함이 없이 외부적으로는 상호 적대하는 폐쇄사회의 테두리를 제거하고 人類愛에 따라 전인류가 연결되는 사회로서 폐쇄된 사회의 고정된 본능적 폐쇄성을 초월하여 생명의 근원으로 연대감을 공감하는 소수의 종교적·윤리적 도덕과 그들의 호소(개방된 도덕)에 따라 실현되어야 할 부단히 향상·진전되는 사회이다』(IBID., p.774.)

또한 「폐쇄된 도덕이란 습관이나 本能에 가까운 폐쇄적 도덕이며 개방된 도덕은 前者로부터 해방된 인류를 위한 도덕을 가리킨다」고 말했다.(有非文閣 社會學小辭典 82年, p.296.)

이는 개방된 사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폐쇄된 사회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권은 폐쇄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19세기부터 문호를 개방하여 개방사회를 지향했다는 것은 오늘날 분단된 상황에서 다시금 음미해 볼만한 것이다.

그다음 開港을 전후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文物을 도입하여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는 운동은 英祖(재위 1725-1776), 정조(재위

1776-1800) 때부터 일기 시작한 實學의 한파인 「北學派」에서부터 일어났다. 北學派의 朴齊家(1750-1815) 洪大容(1731-1783) 朴趾源(1737-1805) 李德懋(1741-1793) 등은 淸나라와 내왕하면서 淸朝文化가 우수함을 보고 발달한 文化를 수입하자고 주장했다.

앞서말한 각국과의 修交에 뒤이어 1884년 甲申政變이 실패하고 1894년 甲午更張에 의해 관제등을 개편했다. 뒤이어 1895년의 배재학당 설치, 1896年 4月 7日의 독립신문 창간은 다같이 近代化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우리民族의 절대다수로 形成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人口의 절반도 안되는 북한은 전통문화를 모조리 파괴하고 異質化된 文化를 북한주민에 강요하고 있다.

전통문화가 수천년동안 계속 되는 이유도 경험상 좋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분단된 民族을 統合하는 구심작용을 한다. 文化란 원래 좋을 수록 統合性과 보편성이 強함으로 수천년동안 계승된 전통문화와의 통일에 발휘할 위력은 계속 힘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이는 統一를 위해 強力한 힘을 發揮하는 것으로 보아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상에서 말한 전통문화를 더욱더 빛나게 발전시켜야 한다.

② 分斷경위의 省察과 分斷克服 및 自主·平和統一觀의 確立

統一教育理念의 두번째 항목은 분단경위의 省察과 분단극복 및 自主 平和統一觀의 확립이다.

분단경위의 省察과 분단극복 및 自主平和統一의 궁극적인 目的은 統一의 目標를 달성하는데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分斷경위의 省察과 분단극복이란 어떤 것인가 自主統一이란 어떤 것인가 平和統一은 어떤 것인가를 살피고 이들 意義와 價値觀을 如何히 확립할 것인가를 論한다.

○ 分斷經緯의 省察

한국의 분단은 지정학적 분단, 다시말해 미·소 강대국의 戰略的 分斷에서 시작되어 이토록 南北韓의 사상적 대립과 社會文化가 이질화하여 극심한 적대관계로 대결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外來思想인 공산주의로 赤化되지 않았던들 또 스탈린 같은 侵略者가 없었던들, 그에 앞서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을 점령하도록 하지 않았던들 또 그에 앞서서 한국이 日本에 併合되지 않았던들, 이러한 분단은 止揚되었을 것이다.

또 정치문화가 西歐의 「오지리」처럼 일정한 水準에 올라있었던들 오지리처럼 自由·民主主義制度下에 統一되었을지도 모른다. (오지리는 中立化統一이지만 自由·民主制度 특히 市場經濟·自由競爭·財産權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분단은 스탈린 사주하에 김일성의 6·25기습남침으로 分斷은 유례없이 심화되었다.

그동안 한국통일을 위한 유엔의 시도로 「유엔감시하의 통일선거」

「交叉承認」과 「유엔同時加入」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북한의 반대로 그 어느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은 南北對話에 응했지만 對話를 또하나의 赤化手段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分斷의 永續化라는 구실로 거부하고 한국의 正統性을 格下하기 위해 미국의 식민지를 규정하고 미군철수와 소위 공산주의식「민족해방」을 내세우면서 平和統一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近代史를 왜곡날조하면서 分斷을 고의적으로 영속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분단고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赤化를 계속 책동하고 있다.

#### ○ 分斷克服

분단극복이란 어떤 것인가 분단극복이란 當面해서 분단에서 오는 비극과 不幸을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서 완화시키거나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는 統一에 이르는 과정에서 重要的 要素가 된다. 분단의 비극과 不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전쟁이며 또한 그에 이르는 긴장고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의 분단역사가 明白히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對話와 交流를 위한 노력도 必要하지만 도발을 억지할 억지력도 배양해야 한다. 억지력은 物理的인 힘만이 아니라 政治的인 安定과 社會安定이 필요하며 경제와 과학기술의 發展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오판할 허점을 보여서는 안되며 國力の 要素를 균형되게 調和시켜 發展시켜야 한다.

이는 南北對話와 交流를 向한 時代일수록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要素들이다.

뿐만아니라 남북대화의 교류를 促進시킬 수 있는 根本바탕이 된다. 이러한 바탕위에 남북대화로 긴장이 완화되고 不信과 오해가 해소되면 분단극복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단의 고통과 비극·不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다. 이들을 위해 맨먼저 赤十字會談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분단의 克服을 궁극적으로 남한의 혁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산가족문제에 아랑곳이 없다.

때문에 북한의 남한혁명책동을 억지하되 북한이 스스로 혁명을 포기하도록 남한의 정세를 安定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최소한도 이산가족들의 書信거래라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의 당위성은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 하기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북한의 立場은 對內外的으로 이로운 것이 없다. 이리하여 분단의 고통과 비극 및 不幸을 제거하자는 것은 남북한 동포 모두의 幸福을 위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對外的으로도 共感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위해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 ○ 自主統一

自主統一이란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서 祖國統一原則을 合意했을때의 첫째 사항이 된다.

즉 祖國統一原則의 첫째 사항으로 「통일은 自主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둘째로 「統一은 武力行使가 아닌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해야 한다」고 했고 세째로 「思想과 理念·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 民族大團結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은 自主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自主統一原則은 남북한이 合意한 것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즉 한국은 자주통일을 남북한 代表가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대화를 하여 우리 民族의 合意로 통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북한은 美軍이 철수해야 자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때부터 美軍철수를 主張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앞서서 미군철수를 主張하고 있다.

북한이 시종일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가지 저의가 있다. 첫째로 6·25기습납침이라는 전쟁범죄 행위를 미국 및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 한국을 미국의 植民地로 格下시키고 북한의 공산정권의 正統性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세째로 미국이 철수했을 때 대한민국의 赤化는 자연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自主統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분단된 民族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和合하자는 것이 바로 그 目的이 된다.

남북한민족이 和合하여 오해와 不信을 해소하고 서로 믿게 되면 平和統一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統一政府는 美國의 存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민족화합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남한의 정복을 위해 미군철수를 主張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存在하는 것은 「유엔」의 결의와 「韓·美 相互

防衛條約」이라는 法的 조건에 의해 이루지고 있다.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은 한국에 대한 內政을 간섭하는 격으로 一方的으로 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은 自主統一의 目的과 意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주통일은 民族和合을 위한 것인데 민족화합을 깨치고 合法的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6·25 남침으로 그토록 많은 남북한 同胞을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財産上의 피해를 가져오게한 전쟁도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格下시키고 外來공산주의의 노예가 된 북한을 正統視 하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自主統一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 民族 스스로 민족화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 平和統一

平和統一은 앞서도 그 개념을 밝힌바 있지만 남북한동포가 그 어떤 不安이나 공포없이 기꺼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平和統一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對話로써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平和라는 글자는 武力 아닌 말로서 平安함을 찾는다는 뜻이다. 英語의 (피이스) 「Peace」 즉 平和는 라틴말 의 「Pacisci」로써 이것은 「同意(to agree)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平和統一의 절대적인 조건은 對話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기피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화통일은

앞서 말한 분단극복과 자주통일과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이므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共通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價値觀은 굳게 함양해야 한다.

### ③ 自由民主主義理念과 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信念

統一教育理念에서 세번째 항목으로 定立해야 할 것은 自由民主主義理念과 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信念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自由란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自由經濟란 어떤 것인가의 의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우월성을 굳게 믿는 것이다.

#### ○ 自由와 法

첫째로 歷史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自由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긴장을 느끼지 않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 자유는 歷史的으로 세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자유는 人間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데 있고 남을 自己처럼 존중하는데 있다.

둘째로 각 개인이 가지는 능력을 개발함에 있어 환경면에서나 기회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째로 각개인이 가지는 개성과 능력을 마음대로 發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는 누구나 비명에 죽거나 자기 몸이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例話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옛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BC485-425)가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페루샤王」이 「그리스」를 공격하고 있을때 「그리스」로 부터의 亡命者가 있었다.』

『「페루샤」의 「쿠세르쿠세스」王은 「그리스」의 亡命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인의 자유가 있다면 자유가 없는 「페르샤」의 大軍과 싸울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리스」의 亡命者는 다음과 같이 대답 했다.』

「그리스」인은 자유를 중시하지만 자유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同時に 法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스는 자유와 法の 두가지 기등으로 成立되어 있다.

당신의 「페르샤」인은 法이 主人이 아니라 당신이다 나는 일개 절대권력자가 있어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군대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리스」인은 法을 重視하고 法の 지시 아래 法을 지키기 때문에, 전사하는 경우도 별도로 命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法과 自由를 보완하는 形式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85년 7월호 「正論」田中美知太郎

의 自由論)』

따라서 自由라는 것은 無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다면 他者의 자유도 중요시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윤리·도덕·法등의 規範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자유사회에서 常識이 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억압없는 生活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창조심이 發揮되고 일할 의욕이 고조 됨으로써 경제적인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도 促求한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理念-體制-役割-개인生活이라는 社會體系의 샘플이 되면서 人間다운 生活을 하게할 뿐만아니라 人間生活을 번영케 한다.

#### ○ 民主主義와 主權在民

그 다음 자유와 연관되는 民主主義, 여기서는 民主制 내지 民主政治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民主制의 理念은 人民의 자유와 平等을 말한다.

한마디로 주권재민의 政治體制를 말한다.

原來 古代의 그리스 民主制는 그 참가에 있어 富의 有無에 따라 제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法에 따라 平等하게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自由는 개인에 관한 것이고 民主制는 政治參加에 관한 것으로서 民主制는 理念的으로나 制度面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러한 자유와 민주제는 각종 全體主義독재와 상반된다.

전체주의는 이른바 「하나를全體를 위하여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간으로 절대권력자가 제멋대로 하는 독재정치가 된다.

더우기 공산주의의全體主義독재는集團主義的集産主義를 근거로 하고 私有財産制度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심과 노동의욕의 저하로 生産은 갈수록 침체되고 따라서 경제는 침체되고 개인생활은 자유사회보다 낙후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行動과 의지의 자유를 다같이 박탈하고 있다. 行動의 자유는 언론·集會·결사·출판의 자유를 말한다.

직업선택이라던가 居住이동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사회이다.

또 독재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19世紀 英國의 思想家 「로드·액튼」 경은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민주주의가 우위하다는 것은 공산사회에서 자유사회로 亡命하는 사람은 지금도 줄을 이어 계속되고 있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75년의 赤化된 「베트남」에서는 약 2백만명이 船上피난민으로서 결사적인 탈출을 했다.

#### ○ 自由經濟와 市場經濟 및 自由競爭

自由經濟는 政治的自由와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서 흔히 자유를 논할때는 政治的自由라던가. 개인의 자유를 말하지만 경제적자유에 대해서는 本意아니게 생략하는 수가 많다.

自由經濟는 市場經濟와 自由競爭 그리고 私有財産制度등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 진다. 우선 이에 관한 例로서 英國의 保守黨이 市場經

濟와 自由競爭을 어떻게 보는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우리당은 자유경쟁기업을 신봉한다. 영국의 産業들은 개인의 창의와 책임에 일임되어야 한다. 능률에 대한 유일한 보장책과 소비자에 대한 건전한 보호책은 自由競爭만으로 이루어 진다……男女老少를 막론하고 그 이하로 떨어져서 안될 최저생활수준을 확정하고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社會體制이다.

그러나 이 생활수준 최저이상에서는 자유경쟁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질투없이 그리고 영국의 法과 관습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수단방법을 다하여 자유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 Conservative political Centre ” The New Censervatism (55) p.73 金相浹 著 「基督教民主主義·社會民主主義·教導民主主義」 知文閣 63年 p.101)

영국보수당의 자유경쟁 찬양론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 西獨의 기독교민주당이다. 西獨의 기독교민주당의 강령은 自由競爭制度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유롭기를 원하는 자는 경쟁에 복종해야 하며 市場에서 권력을 잡기를 단념해야한다. 市場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자는……따라서 경쟁의 콘트롤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자유로워서 안된다.』

(상계서, 지문각 p.101)

西獨의 기독교민주당은 1953년에 채택된 前記한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강제나 관료주의적 후견에 의하지 않고 독일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자주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독일국민의 힘이 발전되었다는 데서 전기한 바와 같이 명시했다.

물론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영국이나 서

독만은 아니고 미국·일본·캐나다·이태리등 자유열강을 비롯해서 한  
국도 마찬가지이다.

中立國인 「스위스」「스웨덴」「오지리」도 마찬가지이다. 공산권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같이 이러한 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또 공산권이라 하더라도 「항가리」나 中共은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앞서 영국의 보수당의 예를 들었지만 노동당의 경우를 들수  
있다.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政府統制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요즈음  
에는 국유화가 경제를 후퇴시킨다는데서 그 主張을 완화하고 있다.

西獨의 사회민주당이나 「프랑스」의 사회당도 마찬가지이다.

西方側열강 특히 美國과 英國은 특히 「적은政府」를 목표로하고 있  
다. 「적은정부」라는 것은 民營化할 수 있는 것은 모두 民營化하여  
정부의 관리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82년이래 종래 국  
유화 했던 「내셔널·버스」를 50개 회사로 民營化하여 合同會社를 만  
들고 운임과 운행노선을 자유화한 결과 赤字運營이 해소되고 경영의  
效率化도 向上되었고 운임도 인하되었다고 한다.(「산케이신문」85년12월30일)

市場經濟를 이윤경제·자본주의적 개인기업경제·교환경제 등 여러가  
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市場經濟에서는 용역·물품·화폐·권리·이권등이 교환되지만 경제적인  
류문화학에서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자연적으로 發生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경제는 개인기업·이윤추구·가격조정·자유경쟁·사회규범 등



다섯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 財産權과 私有財産制度

自由와 재산권은 쌍벽을 이룬다. 財産이란 영어로는 「프로포티」( Property )가 된다.

영어에서 말하는 Property는 라틴말의 ( Proprietat ) 즉 所有( own )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따라서 재산이라는 用語는 일반적으로 所有權 ( ownership ) 또는 所有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所有權이라던가 所有는 재산을 所有하는 사람 또는 조직에 따라 私的所有·集團所有·사회적소유·국가소유로 나누어 진다. 자유사회에서는 私有財産 즉 재산권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사회에서는 私的所有를 부인하고 재산의 사회적소유 또 「全人民的所有」라는 낱말로 私的所有을 부정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특히 「엔겔스」는 1884년에 집필한 「가족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私有財産制度 때문에 단혼제도도 생기고 계급과 국가도 생겼다고 말하고 계급없는 공산주의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인류학자 「류이스·헬리·모루간」( Lewis Henry Morgan 1818-81 )의 著書( 古代社會, 1877년 )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原始공산사회에서는 私的所有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결혼제도도 없었고 난혼과 군혼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순전한 추측으로서 실증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다.

더우기 私有財産制度를 파괴한 공산제도에서는 새로운 특권계급이 등장하여 社會惡으로 존속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부통령을 지낸바 있는 「미로반 지라스」는 공산주의제도를 分析하면서 역사상 가장 혹독한 새로운 계급이 출현했다고 폭로했다.

또 소련의 「모스크바」 및 「루뎀바」대학의 교수요 「소비에트과학아카데미」군축위원회 서기였다가 1972년에 서독에 亡命하여 현재 교수로 있는 「미하일 보스텐스키」는 「노멘크라뜨라」-「소비에트의 새로운 붉은 貴族」이라는 저서를 發表했다. (日譯版 佐久閣 船戶譯, 中央公論社版 81年 p.164)

따라서 私有財産制度 즉 개인의 재산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私有財産權에 대해서 일가견을 발표한 학자도 많다.

英國의 역사학자의 教祖요 法學者로 알려진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1723-1780)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유재산이란 개인이 요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기재산에 대해 오직 천적으로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개인적 권리 보다 우선된다.』(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65)Oxford:Claredon press, 5th edn, 1773 bk (Book)II p.2)

그후 그의 主張을 歐美각국의 헌법 또는 權利宣言에서 明示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혁명(1789.7.14)후 1789년 8월 26일 「프랑스」헌법제정의회에서 채택한 「人間 및 市民의 權利宣言」제 12조를 보면 다

음과 같이 宣言했다.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人間이 소멸할 수 없는 自然權이다. 모든 권리는 自由·所有權·安全 및 壓制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明示했다.(岩波文庫, 高本八尺, 末延三次, 宮澤俊義「人權宣言集」(61) p.131)

뒤이어 1793년 4월 26일에 채택된 「지롱드」당의 헌법 제1조에서는 「人間の 市民的 정치적 자유권은 自由·平等·安全·所有權 및 社會的 保障은 壓制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明示하고 同 18조에서는 「所有權은 모든 사람이 任意로 그 재산권·자본 그리고 그 所得 및 勞務를 처분할 수 있는 지배자 개인에 存在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岩波상계서 p.138)

미국독립이 「프랑스」혁명보다 먼저 있었지만 私有財産權에 관한 것은 「프랑스」가 더 자세하다.

한편 英國보수당도 「私有財産權이 가지는 불멸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개인의 人格發展과 개인의 자유의 보장은 私有財産權에 달려 있다.

개인이 자기환경에 대하여 주인이 되는 것은 私有財産權 개념에 正比例한다」고 말했다.

한편 『私有財産權의 分散이 확산하면 할수록 독재자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자유시민의 수가 늘어간다』고 말하고 『사유재산권만이 각종 독재주의의 出現을 막는 要塞이며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人格을 방어 확장하고 목정자의 擡頭를 막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私有財産權을 가진자는 自己子女를 위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부인을 위해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

서 휴가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相浹著, 基督教民主主義, 社會民主主義, 教導民主主義, 知文閣 (63) pp.101 - 102 )

이는 1953년 서독 기독교민주당강령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自由國家는 번영하고 있다. 그와 반면 그것을 부정하는 공산국가는 인간의 기본자유는 물론 경제적인 생활도 억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이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한 中共은 1982년의 헌법에서 「개인경영경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東歐의 「항가리」는 中共보다 앞서 자유사회경제의 장점을 도입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개인경영경제」의 허용은 「私有財産制度」가 優位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④ 國家의 繁榮과 福祉增進을 위한 積極的 參與姿勢 確立

「統一教育理念을 定立」하기 위한 네번째 항목은 國家의 번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있다.

어느 나라나 제1차적인 국가목표는 國家의 번영과 복지국가을 건설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國家의 번영이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할것인가 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국가라는 어떤 것인가 아울러 북한 내지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상황을 말한다.

#### ○ 國家의 번영과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번영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국가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國家가 어떤 것인가의 개념에 대해서도 학자의 견해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國家는 國民·領土·政府·主權」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國家의 기능은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또는 군주국가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다. 그러나 民主國家에서라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능은 兩面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국가는 국민의 安全을 보장하고 번영된 생활을 도모할 責任이 있는 反面 국민은 그를 위해 희생해야 할 義務도 지니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形成되었지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은 전쟁터에서 위기부담을 가지면서 싸워야 한다.

또 국가유지를 위해서는 稅金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과 국가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달라진다.

독재국가란 독재자가 제멋대로 통치하는 국가로서 국민의 自由을 억압하고 財產權을 박탈한다. 특히 공산독재국의 경우는 그것이 가장 심하다.

이경우 국민은 국가보다도 독재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이 곧 자기를 위한 희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형태는 人類의 歷史에 있어서 民主國家가 가장 바람직한 국가의 형태가 된다.

민주국가의 경우 국가의 繁榮은 국민의 의욕적인 참여로서 이루어진다. 民主國家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國力の 要素가 發展해야

한다. 現代的 의미에서의 「國力の 要素」라는 것은 工業力·「노우하우」(비밀과학기술)·自然자원·科學技術·개발된 人力·군사력·政治的安定·政治的信念·社會制度의 安定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것이 안정된 상황에서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국가안정보장」이라고 한다. 「국가안정보장」이란 국가의 모든 가치 질서와 앞서 말한 國力の 要素를 안정되게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의 繁榮이란 국가의 모든 가치질서와 國力の 要素를 安定되게 발전시키는 국가안정보장을 말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것은 自由와 민주제도가 보장될 때 가장 능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자유와 민주제도 아래서는 人間의 창의력이 高度로 發揮되고 모든 사람이 의욕적으로 국가발전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원래 민주제도라는 것은 모두가 참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국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더우기 統一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아야 한다.

#### ○ 福祉國家의 建設

「福祉國家」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윌리엄·템플」(William Temple)이라는 영국의 主敎가 1941년에 發行한 「市民과 聖職者」라는 冊에서 였다. 「나치스독일」을 전쟁국가로 규정하고 영국의 국가이념을 복지국가로 규정했습니다. (日本版 모리스·부르스著 秋田成虯譯「福祉國家의 발걸음」法政大出版, 84年 p.931) 「템플」주교는 1881년부터 1944년까지 生存한 聖職者 였다.

「복지국가」라는 이념이 보편화 된것은 미국의 「S·Fine」이 1949

년「자유방임주의와 복지국가」라는 著書를 발표했을 때이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요 사회학자인 W·W·Rostow 교수는 1960년에 發刊한 「경제의 성장단계」에서 「복지국가의 出現은 社會가 기술의 進歩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함으로써 기술의 진보가 이룩됨으로써 복지국가가 출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다음 社會福祉 또는 社會保障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福祉라는 뜻은 원래 人間의 행복 및 만족스러운 생활 또는 바람직한 생활을 말한다.

그러나 社會福祉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그 견해를 약간씩 달리 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의 희망이요 이상인 인간의 행복을 민주주의이념 아래 실현하되 생활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완화하며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定立할 수 있다. (大久保滿彦社 社會福祉論, 學文社(74) p.2)

또 영국의 社會學者인(존·J·크라크) 교수는 『全國民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公私의 社會的 諸서비스의 총체』라고 말하고 있다. (유비각, 社會福祉入門, p.13, 79년)

또 社會保障이라는 낱말은 미국에서 1935년 부터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와 똑같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정신은 인류발생이래 原始人 또는 종교정신에서 부터 발휘된 것으로 보고있다.

즉 자비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인간의 인도주의 정신에서

아득한 그옛날 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사회의 사회복지와 자유사회의 사회복지는 根本적으로 다른 것이다.

○ 북한 및 공산국가의 복지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한 복지사회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능력에 따라 노동의 質과 量에 따라 分配받는 사회』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수요에 따라 分配받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없는 평등사회」를 만든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특권계급」을 形成케 하고 있다.

또 모든 생산 수단을 박탈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상실하여 경제를 후퇴하게 함으로써 생활을 침체시켜 사회복지에 결과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또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를 否定하며 이른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제도화 함으로써 공포와 不安으로 다스리고 있다.

때문에 소련의 作家 「브라디미르·드진체프」는 1957년에 『빵만으로 살수 없다』는 방대한 소설을 發表한바도 있다.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의 先進國家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사회복지가 어떠한가를 證誌를 통해 다시금 살펴 보기로 한다.

「안드레이·사하로프」 교수는 75년에 『나의 祖國』이라는 세계에 호소하는 가운데 『소련에서의 교육이나 의료제도는 특권계급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日譯高橋正次 “わが祖國” 徳間書



店 75년 p.46 )

또한 「미하일·S·보스렌스키」는 그의 저서 「노멘크라프라」 에서 소련에서 「무료로 훌륭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全人口의 1.2%인 약 3백만명의 특권계급과 그 가족이라고 말했다.」(佐久間, (船戶譯, 「노멘크라프라」上掲書)

또 소련에서 추방된 著名한 人士인 「빅토르 네크라소프」와 「아래기산드르지노비네프」 그리고 「에드마르드 쿠즈네초프」는 84년 5월 7일 부터 9일까지 日本毎日신문에 게재된 社說에서 이구동성으로 『공산주의사회는 원칙으로 노예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노예노동은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중학생·고등학교학생·대학생들의 무보수 노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것에서 例外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다른 공산권과 달리 세금이 없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세금이 없이 병원이나 학교도 무료라고 하면 그재원은 북한주민의 피나는 노예노동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우기 북한은 특별독재대상 구역에 수감된 사람만도 100만을 헤아리고 있다.

또 경제가 대한민국 보다도 훨씬 뒤떨어지고 보면 북한의 사회복지 는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 남북통일이 민주적원칙에 따라 實現된다면 남 북한 동포의 번영과 복지증진은 자연히 크게 증진될 것이다.

우리민족이 하루바삐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당

위성을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⑤ 南北統一理念比較와 對話·交流時에 있어서의 북한의

대남도전에 대한 對應能力 向上

「統一教育理念을 定立」함에 다섯번째 항목은 「南北統一理念比較와 對話·交流時代에 대한 북한의 대남도전에 관한 對應能力的 向上」이다. 여기서는 우선 한국의 統一理念을 정리하고 또 한국의 統一教育理念을 정리해 본다. 그다음 北韓의 統一理念과 비교해 본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대한 對應能力을 向上시킬 것을 논한다. 북한은 「理念」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지 않고 「思想」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목에서는 편의상 「理念」으로 간주한다.

○ 韓國의 統一理念

이글에서는 한국의 統一理念과 統一教育理念이 大同小異한 것으로 전제했지만 統一教育理念은 統一理念을 교육하는 理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論한 것을 中心으로 統一理念을 정리하고 아울러 비슷하다하더라도 統一教育理念도 정리해 본다.

「統一理念은 분단된 조국을 民族의 正統성과 自由·平和를 理念으로 民主制度를 具顯·南北韓同胞가 不安·공포없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統一을 이룩하여 祖國을 번영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통일국가像」은 어떤 것인가 필자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국가상은 극단적인 理念對決이 없는 自由社會의 복수정당제도의 民主國家를 생각한다. 다시말해 日本이나 미국·영국·서독등 공산당도 合法化하여 多數黨制度의 통일국가을 형

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노동당이 議會民主制度를 인정하고 暴力革命을 포기할 때이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마도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다음 제2차적인 통일상은 현 상태에서의 平和共存을 유지하며 전쟁위협과 폭력혁명이 포기되어 南北韓의 交流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82년 民族和合民主統一案을 발표했을 때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사항들을 말하는 것이다.

#### ○ 統一教育理念

統一教育理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統一教育理念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함에 民族의 正統性和 自由·平和를 이념으로 民主制度를 具顯 南北韓同胞가 不安·공포없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統一을 이룩하며 祖國의 번영을 도모하는 統一理念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① 民族正統性的 繼承과 發展의 當爲性啓發 ② 分斷克服과 自主平和統一觀의 確立 ③ 自由·民主主義理念과 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信念 ④ 國家의 繁榮과 福祉增進을 위한 積極적 참여 자세확립 ⑤ 南北韓統一理念比較와 對話·交流時代에 대한 북한에 關한 對應能力을 向上시키는 데 있다.」

#### ○ 북한의 統一理念

북한의 統一理念은 현행 북한노동당 규약에서 明示되어 있다. 현 노동당 규약은 80년 6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것이지만 북한의 통일이념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

더우기 70년대 이후 南北對話가 交流時代라고 할 시대적 성격과는 달리 대남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당규약중 북한의 통일이념에 해

당되는 것은 前文에 표시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침략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주의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北韓總覽」北韓研究所 83年, p.742)

한편 「북한노동당」의 이념에 해당하는 「당의 당면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上掲書 北韓總覽, p.1742)

이러한 북한의 統一理念과 직결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全朝鮮革命戰略 아래 對南革命과 赤化統一戰略과 戰術을 具體化하고 있다.

#### ○ 北韓의 「教育理念」

한편 教育理念을 보기로 한다. 북한은 1977年9月5日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체제」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上掲書 「北韓總覽」 p.1759)

이러한 북한의 「統一理念」과 전략·전술 그리고 「교육의 이념」을 보면 여기서 定立하는 「南北對話·交流時代를 向한 統一理念」이나 「統一教育理念」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그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안이한 理念定立 같이 생각된다.

○ 북한의 挑戰에 대한 對應能力 向上

따라서 南北對話·交流時代라고 하여 우리는 對北警戒心이나 挑發에 대한 對應能力은 조금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글 첫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統一을 위한 肯定的인 變數의 可能性은 아직도 不確實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거보다 발전된 과학적이고 信念에 찬 對應能力을 向上시켜야 한다.

이 對應能力向上에서는 物理力의 강화도 요구되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안정과 後代들의 平和를 철두철미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온 국민의 合意된 民主수호·民主통일의 결의를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 3. 統一教育理念定立과 그 教育方向

- (1) 좋은 理念은 人類發展과 繁榮의 原動力이라는 것을 信念化하여 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理念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가치관의 信念體系」라고 말한바 있다. 그에 따라 統一理念과 統一理念教育을 定立한바 있다. 이를 教育함에 있어서는 어떤 方向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 누구나 마음으로 굳게 다짐해야 할 것은 「가치 있는 理念」 즉 「善의 이념」은 人類의 발전과 번영의 原動力이 되었다는 信念을 함양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이념」은 곧 「善의 이념」이다.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眞·善·美·聖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대표적으로 「善」이 된다. 善은 곧 인간의 윤리·도덕을 말한다.

어떤 것이 善이고 어떤 것이 惡이나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平和와 戰爭을 비교할 때 「平和」는 가치있는 것이요 善이 되고 戰爭은 가치없는 惡이 된다.

自由와 억압을 비교할 때 自由는 가치 있는 것이요, 善이 되고 억압은 가치없는 惡이 된다.

民主와 독재를 비교할 때 民主는 가치있는 것이요, 善이 되고 독재는 가치없는 惡이 된다.

安心과 平安함은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이지만 인간을 불안에 떨게 하고 공포를 주는 것은 가치없는 惡이다.

인간의 生命을 重視하는 것과 인간의 生命을 마구다지로 학살하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것이 가치가 있고 善인가는 自明한 것이다.

平和統一과 武力 또는 폭력혁명에 의한 통일을 비교할 때 平和統一은 가치있는 善이 되며 武力 또는 폭력혁명에 의한 통일은 가치없는 惡이 된다.

健康과 病, 美와 醜를 비교할 때도 健康과 美는 가치있는 것이며 善이 되고 病이나 醜는 가치없는 惡이 된다.

인류나 한 민족의 역사는 이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가치관과 善에 대한 관점은 이데올로기 즉 「주의주장」 또는 「사회 의식」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지만 좋은 주의주장이나 「사회 의식」은 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윤리 도덕은 인류가 부단히 추구하여 온 여망이었으며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온 것이다.

과거 5천년의 歷史에서 온갖 主義主張이 나왔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人類를 발전시킨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다.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내고 86年 현재까지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는 「도날드·T·리건」씨는 1982年 3月 22日 미국의 버지니아 州에 있는 버크넬대학교에서 「자본주의의 권장」이라는 제목아래 연설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어감이 어색하지만 자본주의는 도의적이며 우수하고 人類 5천년 歷史의 制度중 가장 우수한 것이 라고 말했다.

자본주의의 美德인 절약·극기·근면·공익성·성실등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生産性은 사회주의 국가의 2倍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인에 대한 나쁜 비판도 있으나 자본주의는 이기적이 아니며 지금까지의 세계에 대한 자본주의의 공헌을 말하고 자본주의 철리는 미국정책의 中心이며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사회의 복지정책의 長點」을 말했다.

더우기 자본주의와 대조적으로 사회주의는 과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日本内外뉴스社發行世界와 日本 82.5.24-5.31 일자)

한편 「막스 웨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1904 ~ 5년) 란 저서에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은 이윤추구와 욕구충족 때문만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는 금욕주의와 근로의욕·절약·신용등 윤리도덕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日本の 한 이름난 學者는 21世紀는 日本·대만·韓國의 時代라는 저서를 發表하는 가운데 이들 3개국이 발전하는 이유는 유교文化圈의 崇好사상과 仁·義·禮·知·信등의 덕목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는 쇠퇴하고 있으며 近代化를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中嶋嶺 著「21세기는 日本·대만·한국이다」日本東京제1 企業 86年 p 169 )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도덕이 건전한 것은 인류와 민족발전의 原動力이며 그것은 군사력 보다도 強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스」독일이나 군국주의 日本이 亡한 것은



독재와 침략·대량학살이라는 인간이 해서는 안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亡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전쟁에서 死亡한 人口의 몇배가 공산주의 때문에 학살되었다.

「하와이」大學의 정치학교수인 「루마이얼」교수는 각종 역사자료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1918년 부터 1953년 까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된 자는 소련만도 3천9백50만명 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의 전사자 약 2천만의 2배가 된다. 「루마이얼」교수는 毛澤東統治下에서 학살된 사람은 4천5백만명 이라고 말했다. (자유중국주보 86.9.1일자)

중국이 제2차세계대전때 전사한 사람은 약 1천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바 그 4배 이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된 것이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日本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각각 「TNT」 2만톤급이 었다. 「히로시마」의 死亡者는 인구 30만명중 7만8천1백50명이 었고 부상자는 7만명이 었다.

「나가사끼」는 23만 인구중 死亡者 4만명 부상자 2만5천명이 었다.

그러나 日本의 군국주의 때문에 전사한 사람은 360만에 달한다. 한편 소련에서 추방되어 미국에 亡命중인 「아레기산드르·솔제니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혁명이후 전세계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학살된 수는 1억1천만명 이라고 말했다. (자유세계의 學者들은 1억3천 내지 1억4천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 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스탈린」과 김일성이 도발한 6·25 동란 때문에 남북한 동포 2백 50만명 이상 死亡했다.

이것도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된 것이다.

여기서 定立한 統一理念 내지 통일교육이념은 자유와 민주주의·平和의 理念을 중핵으로 定立했다.

이러한 理念이 가치있고 善의 理念이며 이것을 信念化해야 할 당위성은 그대로 自明한 것이 있다.

## (2) 平和統一의 當爲性

自由·民主·平和를 核으로 하는 統一理念 내지 統一教育理念을 定立하고 그를 教育하는 方向에서는 이것이 좋은 理念이고 가치있는 理念이기 때문에 信念化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에 따라 다시금 염두에 두고 철저히 인식하고 구현해야 할 것은 平和統一의 當爲性이다.

平和라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위협이나 공포·不安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平和는 개인적인 것 이든 民族 내지 국가적인 것 이든 대화에서 이룩된다는 것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는 영어의 Peace (平和)라는 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말로 Peace는 Pax라고 하지만 이는 「파시스시」(Pactsci) 즉 「同意한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同意한다」(to agree)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화라는 것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대화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화는 모든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더우기 남북한의 平和 내지 평화통일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어째서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는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째로 平和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 누구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本能的으로 낡을 때부터 자기 몸이 다치거나 非命에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평화는 곧 古今東西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여망임에 틀림이 없다.

더우기 우리민족은 祖上을 같이 하는 한핏줄의 단일민족이다. 동포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게 대해서 처럼 적합한 것은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祖上을 같이 하는 單一民族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와 平和 그리고 평화통일의 당위성은 어느 민족보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둘째로 「平和統一」이라는 4字는 대체로 다른 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知的인 의미와 情的인 느낌,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식·의사·의지·결심·태도와 실천등의 다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平和統一에 대한 情的인 감각 즉 평화통일의 느낌이 된다. 平和는 감각적으로 인간이 平安함을 위해 중요하다는 느낌은 가지게 된다.

더우기 平和統一의 반대되는 것은 武力統一이다. 武力統一은 6·25와 같은 同族상잔의 비극을 연출할 뿐만아니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은 경험상 알 수 있다.

지난날 6·25 동란으로 말미암은 남북한의 희생자는 약 250 만명이며 부상자는 적어도 5백만에 달 할 것이다.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天文學的 숫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쓸모없는 희생이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6·25와 같은 전쟁이 되풀이 된다면 現在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火力の 質과 量으로 보아 6·25 당시의 피해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토록 막대한 희생을 가져오는 비극적인 통일은 사실상 안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세째로 平和統一의 당위성은 分斷된 조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며 가장 가치있는 것이다.

흔히 인간의 社會過程을 5 대과정으로 나눈다.

즉 투쟁, 경쟁, 협력, 同化, 조정등을 말하는 것이다.

투쟁은 승패를 명백히 가진다는 長點도 있지만 막대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보복을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

따라서 평화로운 경쟁, 협력, 또는 同化 조정등은 투쟁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는 투쟁이라는 것은 회피해야만 한다.

네째로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의 법칙」이 곧 「사회 발전의 법칙

성」이라는 「유물변증법」이나 史的유물론을 그들의 세계관 즉 철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한마디로 모든 것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유물변증법의 핵심이다. 또 史的유물론은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단적인 가설이다. 투쟁에서 나올것은 비극과 不幸 밖에는 없다. 자연의 삼라만상을 비롯해서 인간의 생활은 조화로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투쟁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은 즉각 버려야 한다.

다섯째로 평화통일의 당위성은 민족화합을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和合하는 곳에 平和 내지 평화통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그러한 平和 속에서만 통일된 한국의 번영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3) 統一文化의 形成

하나의 文化였던 우리의 單一文化가 어떻게 異質化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이질화된 文化을 어떻게 다시 同質化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統一文化形成을 논할까 한다.

우선 文化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는 물론 日本·中共 등 東洋 3國에서는 「文化」라는 낱말과 文明이라는 낱말을 구분해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文化라고 할때는 生活水準이 높다던가 교육수준이 높다던가 하는 의미로도 생각하고 文化行事하면 단순히 文學과 예술등의 행사만을

가리키는 듯한 인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文明이라고 할 때는 주로 物質的인 것만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西구라파에서는 文化와 文明의 낱말은 다르다 하더라도 同一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東洋 3國에서 社會라던가 文化, 文明이라는 用語가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자세치 않다.

日本의 경우는 대체로 明治유신 때에 도입되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로 된 독립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6년 4월 7일이다.

그 창간 사설을 보면 社會는 「세상」이라고 했고 政治는 政府라고 했다.

安島山先生이 1924년에 「有情한 社會」와 「無情한 社會」라는 글을 發表한바 있는데 아마도 社會란 말은 그때부터 사용한 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文化와 文明이라는 말은 3·1운동 이후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西洋에서는 대체로 文化와 文明이라는 글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西歐에서 이것을 처음 近代的 의미로 풀이한 사람은 영국의 人類文化學者「E·타일러」(E·Tylor)였다.

그는 1871년에 發行한 「原始文化」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文化란 광범위한 民族誌的 민생과의 의미에서 지식·신앙·종교·

예술·법률·도덕·관습·기타 사회의 일원으로서 人間에 의해 획득한 능력이나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라고 말했다. (日本有斐閣 社會學概論(76) p47 “Edward Burneth Tylor” “Primitive Culture” 2 vols 1871“London John Murry” 1871, p.1 )

이러한 文化의 개념은 미국의 文化人類學者 「프란츠·보아즈」 (Franz Boas) 에 의해 계승되어 미국에서도 그런 뜻에서 사용한다.

「보아스」는 뉴욕·콜럼비아대학의 교수였으며 미국 文化人類學 내지 社會文化學의 教祖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西洋에서도 주로 文化는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文明은 物質的인 것을 말하는 學者도 있다. 그리고 文明의 발전속도는 文化보다 빠른 것으로 보지만 兩者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文化속에 文明을 포함해서 말한다. 이러한 文化를 보다 쉽게 「社會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習得한 생활양식 또는 思考樣式」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文化하면 文學 예술 정도로 좋게 생각하는 것과 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 文化의 특성은 超社會的이고 超개인적 이지만 그 發生은 人間の 창조성·인간성·便利性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것으로 社會的으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文化가 時代에 따라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價値여하에 따라 變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價値를 眞·善·美·聖의 文化라고 한다. 「眞」이라는 것은

學問인 哲學을 말하고, 「善」이라는 것은 倫理·道德을 말하고, 「美」는 예술을 말하고, 「聖」은 宗教를 말한다.

이러한 眞·善·美·聖의 가치있는 文化는 몇천년을 두고 전통文化로서 계승되면서 現代에 이르고 未來에도 계승될 것이다.

이렇게 文化 또는 文明을 定義하고 남북한의 극도로 異質化된 文化와 文明 그리고 理念 思想을 비교해 보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이는 누가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즉 북한의 文化와 理念은 전통文化를 말살하는데 그치지 않고 허구적인 뜻으로 왜곡 날조 하고 있다.

요컨대 그러한 뼈뿌러진 文化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文化와 理念은 극도로 異質化 되었지만 매우 잘못되게 뼈뿌러져 나갔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자란 전통文化는 정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찬란히 빛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歷史와 전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독단적인 外來思想에 예종하면서 우리 전통文化를 왜곡 날조만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동포를 억압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렇게 전통文化를 왜곡 날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를 閉鎖하고 문은 굳게 닫아 놓아야 한다. 外部에서 그어떤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한다. 外部에서 더우기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이고 자유로운 文化가 들어가면 북한의 독재 기반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문을 닫아 놓고서도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부인하는 악랄한 선전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도 촉구하는 南北對話와 交流를 거부하는 것도 閉鎖사회에서만 存在할 수 있다. 북한의 날조된 文化가 崩壞되고 또 김일성一黨 獨裁政權이 崩壞될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明白하고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文化가 優位하다는 것과 이 優位한 文化는 지금도 전과매체로 북한에 메아리치고 있다.

그럴수록 북한당국자는 억압과 독재를 더욱 가혹하게 감행한다.

그러나 좋은 文化는 말이 없어도 千里를 갈 수 있다. 그리고 文化는 아무리 다른 文化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대로 普遍性 즉 전파력과 統合性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과거의 「레닌」식 복장을 내던지고 의복의 색채가 다채로워지고 또 양복도 입게하고 굵높은 구두를 신게하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文化를 만들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에 同化하기 때문이다.

文化는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남북한 동포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統一文化도 이룩해야 한다. 統一文化란 뜻은 異質化된 북한의 이단적인 文化를 民族文化에 다시 同質化 시키는 것이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同一民族으로 同一한 生活樣式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統一文化의 基準이 自由文化이다.

이것은 文化의 성격으로 보아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게 작용할 것

이다.

특히 統一文化의 主體가 되는 대한민국의 文化는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自由文化를 선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中心으로 統一文化를 이룩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統一文化가 이루어질 때 統一은 이루어진다.

#### (4) 提起되는 質問에 대한 答辯

統一理念 내지 統一教育理念에서 심상치 않게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첫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북한의 시종일관 主張하는 이른바 外勢의 간섭없는 自主統一을 위해 美軍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답변의 內容은 이미 앞서서도 말한 바 있지만 김일성은 南侵에 대한 전쟁범죄의 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을 美國 식민지로 격하하여 한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며 한·미 이간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을 약화시켜 대남혁명의 유리한 조건을 形成하기 위해서이다.

더우기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은 「유엔」의 결의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여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內政干涉이다.

또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한·미안보체제로서 이는 南北對話와 交流로써 긴장이 사라지고 오해와 不信이 해소되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북한이 反民族的인 外來思想을 포기하여 平和가 定着되고 平和統一이 이루어지면 그와 더불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남북한의 통일에 關한 주장과 남북대화에서 말하는 것은 黑白論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黑白論이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며 북한은 대화를 기피하고 대화를 대남혁명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黑白論이 될 수 밖에 없다.

세째로 북한이 主張하는 연방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全世界의 약 1백 70 개국중 각종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50 여개국에 달한다. 연방제의 철학과 목적은 權力을 分散하는 민주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공산연방제는 書記局 및 政治局 또는 일인 독재자와 하나의 「이데올로기」만을 인정하는 변칙적인 연방제로서 그들은 「연방제」라는 이름을 도용했다 뿐이지 연방제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대남혁명을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선전선동에 그치는 것이다.

네째로 남북한의 用語가 異質化 되었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사용하는 자유, 平和, 민주는 전통적인 개념과 다른 공산주의혁명과 직결되는 용어로 같은 민족이나 같은 동포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프로레타리아」 계급은 타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우기 북한은 「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도 權力을 세습하고 있다.

다섯째로 여기서 정립한 통일이념 내지 통일교육이념은 과거의 냉전논리와 다를 것이 없으며 통일 아닌 대한민국만에 단독주장이 아닌

가 하고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統一理念이나 教育理念 어느 것을 보더라도 북한동포의 不利益을 주거나 해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며 世界의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內容이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동포도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재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자유해방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이 冷戰論理에서 탈피했다는 것은 서울에 中共 및 소련 그리고 東歐共產國의 體育·學術·국제회의 대표들이 자주 참가한다는 데서도 알수 있고 門戶開放政策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데서도 알수 있다. 全面的인 反共이 아니라는 것은 이러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문호개방정책은 73年6月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에서 천명한바 있지만 이는 中·소·東歐圈과의 非公式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서 成果를 거둔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이 南北間에도 실현될 개연성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但,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아직도 묘연하다.

## 結論 - 理念教育의 重要性

한국은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처해서 정신교육 내지 정신무장을 위한 사상교육, 오늘날의 의미에서 理念教育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6·25 동란 중 軍政訓에서 끊임없이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 國民教育에서 이것이 重要하다고 각별히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80年代 제5공화국 이후이다. 그러나 唯物史觀에 對應하는 民族史觀도 정립된 것이 없고 反共·統一·安保의 개념도 이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이나 당국이 생각한 것 뿐이고,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體系化된 것이 없다.

정신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6·25 때 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그것을 함양할 구조적인 制度는 아직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더우기 反共·統一·安保教育의 說得力은 해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은 朴容憲教授 (本研究 책임자)의 「南北韓 對立 이데올로기教育의 回顧와 展望」에서 상세히 개진되고 있다.

어쨌든 理念教育은 어떤 것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統一教育理念의 定立과 教育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教育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한 教育要員 확보와 시설의 확충, 이에 대한 관심이 官民間에 제고 되었더라면 지금같은 무관심상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理念教育을 教育責任者들이 다같이 중요시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테리 일수록 「비판」이 眞學問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바야흐로 統一論議의 混線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한편의 논문으로 좋게 止揚한다는 것은 어렵다. 더우기 이 보잘것 없는 논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더 이러한 主題에 대한 활발한 研究가 있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1. 1986年版 自由國民社版 「現代用語의 基礎知識」
2. “New Edition Program” Moscow Pravda, 7 Mar 1986.
3. A Modern Dictionary of Sociology by George A. Theodorson & Achilles G. Theodorson, A Barnes & Noble Books, N.Y. 79
4. 「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80年
5. 日本 有斐閣發行 「社會學小辭典」, 80年
6.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59年
7. 孫文著 李明九譯 「三民主義」 蔡之館, 71年
8. 「國民倫理」 韓國國民倫理學會編 螢雪出版社, 86年
9. Desful de Tracy “Elements d’Ideologie” 5vols 1801-1 日譯版 戶坂潤 「이데올로기概論」 1932.3版 1952, 理想社
10. 日本有斐閣 「社會學辭典」 58年
11. 日本 「文藝春秋」86年9月號
12. William Safires “Political Dictionary” Ballentine Books N. Y. 80.
13. Earnest Barker “Reflection of Government”, 1942
14. 日本 「現代思想辭典」 清水幾太郎編 講談社 83現代新書
15. 크로드레비著 太橋保夫譯 「野生の 思考」 미스즈書房, 「世界的思想名著」 自由國民社, 84年
16. 「世界的 古典名著總解說」 增補新版日本自由國民社版, 81年
17.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 11권 종교·철학사(上) 1979
18. 中嶋嶺雄著 「21世紀는 日本·대만·韓國의 時代」 第一企劃出版

86年

19. 朴成壽「독립운동사연구」창비신서, 72年
20. 姜在彦「朝鮮의 攘夷와 開化」東京平凡社 (77)
21. 黃性模著 「知성과 近代化」서울大出版部, 86
22. 李令英著 「權力的 歷史」成大出版部, 84
23. “ Conservative Political Centre ” The New Conservatism (55)  
金相浹著 「基督教民主主義 社會民主主義·教導民主主義」  
知文閣, 63
24. 엥겔스 「家族·私有財産 및 國家의 起源」日本版 國民文庫
25. Lewis Henry Morgan “ Ancient Society ” 1877
26. 미하일·보스텐스키著 佐久間·船戶譯 「노멘크라뚜라」-「소비에트  
의 새로운 붉은 귀족」中央公論社版
27. “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65)  
Oxford : Clarendon Press. 5th Edn. 73 BK.Ⅱ
28. 高木八尺 未延三次 宮澤俊義「人權宣言集」岩波文庫, 61年
29. 日本版 모리스·부르스著 秋田成就澤 「福祉國家에의 발걸음」法政大  
出版部, 84年
30. 大久保滿彦「社會福祉論」學門社 (74)
31. 有斐閣 「社會福祉入門」 79年
32. 브라디르·드진체프·김학수역「빵만으로 살수 없다」진문사, 81年
33. 日本版 「단드레이·사하로프」高橋正譯 「나의 祖國」-「세계에 대  
한 호소」德問書店, 75年
34. 「北韓總覽」北韓研究所, 83年



35. 日本内外뉴스社發行 「世界와 日本」 82年
36. 막스·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日本版  
岩波文庫
37. 日本有斐閣 社會學 概論 , 76年
38. Edward Burnett Tylor “ Primitive Culture ” 2 Vols London, John  
Murray 1871
39. 國土統一院發行 「統一教育을 위한 一般指針」 74年
40. 國民倫理學會 86年度 全國大學國民倫理擔當教授學術大會 「韓國의  
國家理念과 國民倫理教育」 86.8.18- 8.21.
41. 韓國國民倫理學會地域學術發表大會 한국국민윤리학회 및 한국국민  
윤리학회 서울支會 「理念教育의 理想과 實際」 86.7.19

